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 같이 걷는 협치서울

값 5,000원



ISBN 979-11-6161-434-2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 **함께 걷는 협치서울**

서울특별시

I·SEŌUL·U
너와 나의 서울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915-01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서울특별시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ISBN 979-11-6161-434-2 비매품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 **함께 걷는 협치서울**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915-01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시작하며

들어가는 말

06



1 [경제]
협치로, 상생하는 서울

- 1-1. 한땀한땀 공들인 장인정신의 결정체 성수동수제화육성지원 10
- 1-2. 서울의 밤이 즐거워진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14
- 1-3. 서울아 서울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사회주택공급 18
- 1-4. 서울 도심제조업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 22
- 1-5. 청년이 '일'내는 건강한 서울 청년일자리창출 26



2 [문화]
협치로, 다채로운 서울

- 2-1.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사업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32
- 2-2. 청년에게 창작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청년예술인지원사업 36
- 2-3.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만들어요!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40
- 2-4. 재생의 힘을 보여준 '여섯 빛깔 탱크' 문화 공간 문화비축기지 44
- 2-5. '공간 잇는 길'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길' 되다 서울로 7017 개장 및 운영 48



3 [복지]
협치로, 힘이 되는 서울

- 3-1. 장애인 등 관광약자도 행복한 서울관광 시대 열다! 무(無)장애 관광도시 조성 54
- 3-2. 소통과 참여를 확대합니다 서울복지거버넌스 58
- 3-3. 민관협치로 장애인 인권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서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협치 사업 62
- 3-4.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66



4 [안전] 협치로, 든든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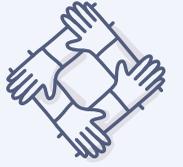
4-1. 서울시민과 함께 '먹거리 기본권' 지켜나갑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	72
4-2. 도시와 농촌, 사람과 먹거리를 잇다! 도농상생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활동가 양성	78
4-3. 서울 아리수, 몇 점인지 아시나요?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82
4-4. 시민 스스로 위기대응능력 길러 '안전사회' 만든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86
4-5. 생활주변 감시로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든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운영	90

5 [환경] 협치로, 푸르른 서울



5-1.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만든 멋진 하모니! 시민과 함께 가꾸는 한강공원	96
5-2. 서울시 에너지 시민의 성장, 협치로 돕는다!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100
5-3. 환경특별시 서울, 시민이 함께 만들어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6
5-4. 2단계 돌입,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만든다! 원전하나줄이기	110
5-5.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116
5-6. 우리 동네 환경은 내가 지키네! 시민자율환경감시단	120

6 [시민력] 협치로, 함께 크는 서울



6-1. 시민과 함께 성평등 정책 만들다!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젠더거버넌스	126
6-2. 다양한 청년활동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32
6-3.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여 시민과 함께 실행하는 시정 민주주의 서울	136
6-4.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100% '시민학교' 모두의학교 개관	140

7 [자치구] 협치로, 연결되는 서울



7-1.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마을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146
7-2. 청년과 행정 동행의 첫 시적! 금천구 청춘벨딩	148
7-3. 유해음식점 거리, 문화와 예술이 있는 명소로 거듭나다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152
7-4.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누리는 세상 만든다 서대문구 보육포럼	156
7-5. 갑을이 아닌 아름다운 동행으로 일군 상생! 성북구 동행계약서	158
7-6. 쓰레기, 꽃이 되다! 양천구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162
7-7. 아름다운 청년자립프로젝트 영등포구 청년활력일자리 만들기 '천·취·창·조'	164
7-8. 주민의 삶을 감싸 안은 책 마을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168

2017 서울협치백서 “함께 걷는 협치서울” 제2부를 열며...

협치로, **상생하는** 서울
협치로, **다채로운** 서울
협치로, **힘이 되는** 서울
협치로, **튼튼한** 서울
협치로, **푸르른** 서울
협치로, **함께 크는** 서울
협치로, **연결되는** 서울



작년에 발간한 서울협치백서 제1부에 이어 올해 제2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서울혁신기획관 내 민간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주관했던 협치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수록하였고, 제2부에서는 서울시의 여러 실·본부·국과 자치구에서 협치적으로 실시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백서에 수록된 사례들은 서울시 협치 사업의 전부가 아니며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건 상 본 백서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협치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 분들이 시민참여예산, 응답소, 민주주의 서울 등을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있고, 청책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각종 공론장에도 활발히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 엠보팅에도 참여하여 시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직접 해주시고 있으며, 각종 시민 기획단, 모니터링단, 평가단 등을 통해 실행 및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협치가 아니면 수행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협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수록된 사례들이 협치의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걷는 협치서울, 100% 활용하기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은 총 7개의 큰 장(章)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큰 장은 각각의 작은 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장들을 내용 별로 나누어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협치로, 상생하는 서울



협치로, 상생하는 서울

- 1-1. 성수동수제화육성지원
- 1-2. 서울밤도깨비야시장
- 1-3. 사회주택공급
- 1-4. 다시·세운 프로젝트
- 1-5. 청년일자리창출

한땀한땀 공들인 장인정신의 결정체 성수동수제화육성지원



- 홈페이지 : <http://seongsushoes.or.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ongsushoes.or.kr>
- 문의(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02-2133-8777

가능성, 키웁니다

구두메카에서 수제화거리로 발돋움

서울 지하철 성수역 1번 출구 아래에는 1년부터 7번이라고 숫자가 적힌 상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매장들은 성동제화협회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성수수제화타운'. 이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모두 수십년째 성수동에서 수제화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1980년대 1,200여 개의 구두제조업체가 밀집해 '구두의 메카'라는 별명을 얻은 성수동 수제화거리.

왜 이렇게 신발 업체가 성수동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예전부터 지하철 2호선 라인인 성수역과 화양역(현 건대입구역) 사이엔 봉제공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혁, 의류, 가방공장이 들어서게 됐고, 제화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값싼 중국산 구두에 밀려 수제화거리는 사장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제조업자들의 자생적 노력과 서울시의 지원으로 다시 한 번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시내 제조업 부활을 위해 성수동 수제화산업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제화타운 설립 외에도 수제화 명장 선정 사업, 수제화 판로개척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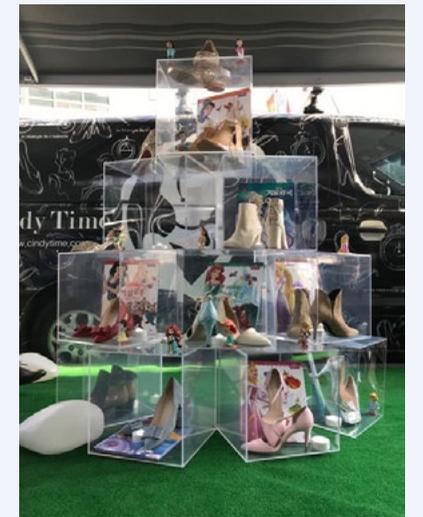


새길, 만듭니다

이태리 수제화 부럽지 않은 '메이드 인 성수동수제화'

2017년 성수동수제화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디자이너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제화 제조자, 디자이너와 MD(merchandise, 상품 기획에서 판매까지 담당하는 전문인)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서울수제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3명이 수료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명문패션스쿨인 이탈리아의 알수토리아(Arsutoria)를 초청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초청작가와 성수수제화아카데미 재학생·졸업생 간의 교류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제화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수 수제화 제작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생산기반이 없는 디자이너에게 시제품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신진디자이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 수제화가방 시제품이 164종 제작되었고, 예비창업자 31명이 사무공간을 제공받고 창업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을 조성하여 신진디자이너 육성은 물론 젊은 문화소비층을 겨냥한 상품 기획 및 전시·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희망 플랫폼에서는 작가와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다양한 시민체험 행사가 열린 성수 수제화 슈슈마켓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장인과 신진디자이너의 협력공간 만들어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수제화 및 가죽산업 분야에 젊고 재능있는 인재 유입을 위해 30석의 창업공간과 37종의 공동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성수 수제화 제작소'를 2017년 6월 개관했습니다. '성수 수제화 제작소'는 창업, 시제품 제작, 공동장비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제작소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유연생산체계 확산을 위한 숙련기술자와 디자인 디렉터를 갖춘 원스톱 토탈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20평 규모의 공간은 ▲ 전문가 3명이 상주하며 샘플 제작을 지원하는 수제화 및 가방 제작터 ▲ 예비창업자 간 협력공간인 수제화 및 가죽공예 창작터 ▲ 입주자 및 지역소공인의 아이디어 공유 공간인 나눔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각종 고가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장비터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가죽제품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초기 창업

과정에서 서로가 겪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개방형 책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휴게실, 회의실, 우편함도 설치해 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또, 시와 SBA는 수제화 및 가방 관련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시제품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제화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제갑(가족원단 봉제) 및 저부(창과 굽 끼우기) 숙련기술자를 각 1명씩 채용하고, 가죽가방 분야도 1명을 별도로 채용해 수요자 맞춤형 제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SBA는 초기창업자와 지역 기반 소공인과의 연계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이후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소공인에게는 새로운 일감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협치,
해냅니다

민관협력으로 디자이너와 혁신 기업 발굴

서울시는 수제화 산업의 붐업을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디자이너와 혁신 기업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혁신기업을 선발한 서울시는 하반기 초기사업비와 컨설팅, B2C-B2B 아이템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3단계로 상품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성수 수제화 제작소 내에 성수동 기반 지역 소공인을 위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등 성수 수제화 품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밤이즐거워진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 홈페이지 : www.bamdokkaebi.or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mdokkaebi/>
- 문의(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02-2133-5536

가능성, 키웁니다

시민에게 한여름 밤의 꿈, 청년에게 창업의 꿈을 밝히다

환상적인 야경이 주는 낭만, 감성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오코노미야끼, 큐브스테이크부터 팟타이까지 세계의 다채로운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입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빛을 발한 새로운 서울의 명소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서울밤의 지역명소로 특특히 자리잡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상인들에게 창업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여 판로 확보는 물론 상품성 확인 등 창업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밤도깨비 야시장이 더 늘어났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야시장은 매해 규모를 키워왔으며, 2017년엔 3월 24일부터 10월 29일 까지 총 6개소에 505팀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에 개최했던 장소에서 2017년 에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최지를 조정하 기로 했습니다. 또 2016년 10월 진행한 야시장 후보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개최지 역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엔 3월 동시 개장을 통해 운영일수를 늘리고 상시성을 강화했으며, 신규 상인 을 늘려 야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17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현황

장 소	컨 셉	운영시간	운영규모	
			일반상인	푸드트럭
계			328	177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 월드나이트 마켓	금, 토 18:00~23:00	60	45
반포 한강공원	낭만달빛 마켓	금, 토 18:00~23:00	60	45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춘 런웨이 마켓	금, 토 18:00~23:00	63	32
청계천	타임슬립 마켓	토 16:30~22:30 일 16:00~21:00	60	30
청계광장	계절별 시즌마켓	금, 토, 일 18:00~23:00	60	10
문화비축기지	숲속의 피크닉 마켓	금, 토 17:00~22:00	25	15

함께, 세웁니다

상설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상설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정책토론회를 2016년 2월 3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개최 대상지역의 주민과 상인, 작년 야시장 참가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 일반시 민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외야시장 사례, 시민시장 협력, 지역상권상생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이 2016년 서울야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신지희 오니트(주) 대 표가 '해외야시장 활성화 사례를 통한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이호진 방물단 대표가 '시민

시장과 함께하는 야시장 상설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성남상공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야시장 상설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발표 후 참석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청책토론회는 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한 시민도 온라인으로 참여가능한 열린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셜 방송 라이브서울, 유튜브, 아프리카TV, 다음 TV팟 등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청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책토론회 개최결과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총 90개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결과 23개의 의견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서울 야시장의 독창성을 위해 특색 있는 상품군을 구성하자는 의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야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 야시장으로 활용가능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상설화를 위한 청책토론회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5:00~15:05	(5') 2015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영상 상영	
15:05~15:08	(3') 개최선언(토론회 배경 및 진행방식 설명)	사회자(윤성진 교수)
15:08~15:15	(7') 발제 : 2016년 서울야시장 상설화 계획	소상공인지원과장
15:15~15:30	(15') 지정토론(3인) - 유사사례 제시를 통한 정책제안 등	신지희(오니트) 이호진(방물단) 강현수(성남상공권활성화재단)
15:30~16:20	(50') 방청객 자유토론 및 온라인 의견 모니터링 - 별도의 답변 없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	사회자
16:20~16:25	(5') 시장님 말씀	시장
16:20~16:25	(5') 사진촬영 및 폐회	다같이



시민의 밤놀이터로 역할 톡톡, 매출은 쑥쑥

이러한 노력과 협업을 통해 2017년 야시장 방문 인원은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개소에 1일 평균 10만3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총 494만 명이 야시장을 방문하여 2016년 방문 인원인 330만 명에 비해 50% 상승하였습니다.

또 여의도 255개, 반포 255개, DDP 222개 등 총 1,187개의 대규모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역시 2016년 726개에 비해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거리, 먹거리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매출 규모 역시 증가했습니다. 2017년 총 매출액은 126억으로 2016년 76억 원 대비 66%나 증가했으며, 푸드트럭 한 대 당 일평균 147만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18년에도 3월부터 6곳의 야시장을 동시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2018년에는 야시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매장 보유자도 야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연도별 운영현황

구분	2015	2016	2017	누계('15~'17)
개최횟수(회)	7	122	221	350
참여상인수(팀)	93	312	505	910
누적방문객수(만명)	20	330	494	844

서울아 서울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사회주택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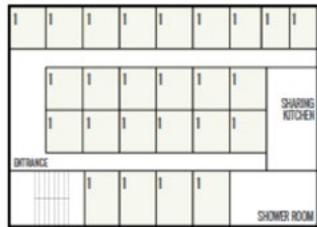


- 홈페이지 : <http://soco.seoul.go.kr/soHouse>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ocialhousing4seoul>
- 블로그 : <http://www.socialhousing.site>
- 문의(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02-2133-702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02-6925-0990

가능성, 키웁니다

지옥같은 주택빈곤, 민관협력형 사회주택으로 해결

서울에서 '지옥고'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뜻합니다. 2018년 6월 통계청의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의 비율은 급감하는 반면,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의 비율만 역주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층 빈곤이 심화되고, 서울에서 이탈하는 30~40대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입니다.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도록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새길, 만듭니다

함께 살면 더 잘 사는 도시, 서울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을 선보인 이래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을 총 683가구를 공급했습니다(2017년 12월 기준). 사회주택 공급방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부지에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공급·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SH공사)는 심의를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 매입한 후 30~40년 간 저리로 임대합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같은 비주택을 매입하여 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후 무주택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최장 6~10년 동안 시세 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



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시범사업을 통해 40호를 공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물량을 7배로 확대했으며, 리모델링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려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금융기관과 협약 맺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자금조달 팍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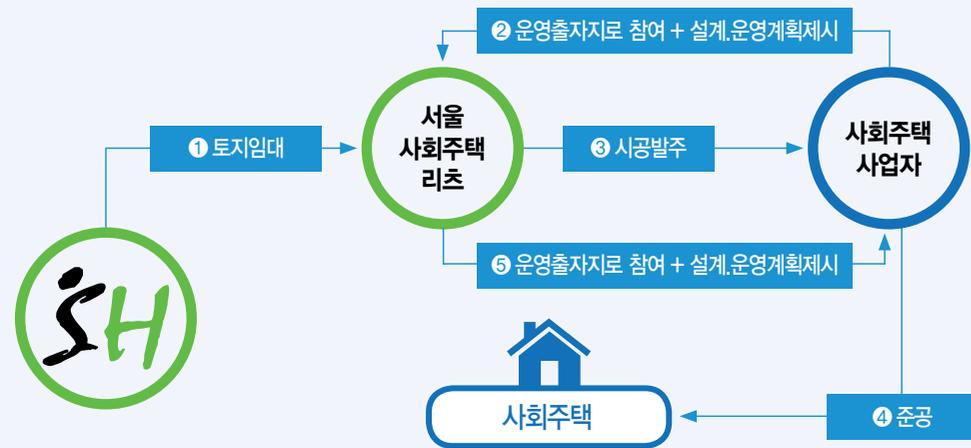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약을 맺고 초기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입니다. 소액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일본·싱가폴 등에서는 리츠가 임대주택, 대학교 기숙사,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 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사구·SH공사 소유) 신축 ▲SH공사 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합니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KEB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의 문제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른 첫 수혜 사업지는 궁정동 사회주택입니다.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아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 서울사회주택리츠 사업구조



협치, 해냅니다

공실 줄이고 임대료 낮추니 일석이조

사회주택은 건물주는 경기침체와 노후화로 인해 늘어나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좁은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열악한 주거 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커뮤니티 공간(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이 적절히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변신시켜 신개념 1인 가구 주거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는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을 제3의 주거대안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제조업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



- 홈페이지 : <http://sewoon.org>
- 문의(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02-2133-8503

가능성,
키웁니다

로봇도 만드는 잠재력, 도시재생으로 다시 꽃피워

세운상가는 1968년 지어진 국내 최초 주상복합타운입니다. 건축가 김수근의 획기적인 설계로 완공된 세운상가는 7·80년대 대한민국 전자 메카로 불리며 중심 상권을 형성하여 연예인 아파트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용산, 강남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건물 이 노후화되면서 세운상가 일대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기전자, 조명, 기계·금속, 조명, 인쇄 등 7,000여 개의 산업체와 2만여 명의 기술자가 밀집한 도심산업생태계로서의 역할과 세운상가가 가진 역사도심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에 주목,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하지 않고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운상가는 지역의 역사성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사통팔달 보행 중심축,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 다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지우고 새로 쓰는' 도시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도시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보행', '산업', '공동체' 세 가지의 큰 틀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묘와 남산을 잇는 입체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는 '보행재생'은 광복항단보도, 세운광장 조성, 세운·을지로·마른내로 보행교 설치, 보행데크 신설·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산업재생'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이 핵심입니다. 협업지원센터, 세운광장·옥상 메이커스큐브, 도심제조업 스마트엔커시설, 인쇄공방, 독립서점 등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략기관을 유치하고 청년층 사회·행복 주택 공급, 세운기술중개소 설치·운영, 수리협동조합 등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다시세운시민협의회를 운영하고 2단계로 주민협의체를 조직·운영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공모사업과 함께 다양한 홍보·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2015년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설계를 완성했으며, 2016년 1월 1단계 다시·세운 프로젝트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UCC공모전과 국제 컨퍼런스, 세운상가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세운상가 재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설계에는 주민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소유자와 상인대표는 함께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식을 갖고 3월 1단계 구간 공사에 착수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세운상가가 2017년 9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주민과 상인, 시가 몽치니 사업은 ‘착착’ 시민은 ‘짝짝’

서울시는 도심산업의 유산인 세운상가와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도시·건축 등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활성화 자문단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산업·문화 등의 전문가 22인으로 구성된 ‘세운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대표, 종로·중구 구청장, 시의원 등 18인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상인 등 88%가 도시재생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 도시재생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대표와 상인대표, 서울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료 급등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와 상인들이 소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약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임대료가 안정됨으로써 문화단체나 젊은 창작자들이 입주할 수 있어 지역 활력 증대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의 주체로서 주민, 상인 등이 주도하는 지역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협의회도 2017년 11월 발족하였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상가군별 소유자 및 상인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수리협동조합의 기술장인, 문화예술단체, 입주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5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의 창업 기반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4대 전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을 위한 입주공간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 · 공감&기대관리 프로세스

1단계 (소통과 기대분석) (Communication & Clarity)	2단계(기대맞추기) (Influence Expectations)	3단계(위험요소 관리) (Contingencies)
· 지속적 만남 / 실태조사 · 상인생각과 원하는 것 파악	· 기대분석 및 전략수립 · 협상추진→기대맞추기	· 불만제기 통로 향상 확보 · 민원 집단화 사전차단



협치, 해냅니다

서울한복판에서 4차산업 중심지로 부활의 날개 펼쳐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7년 9월, 종묘-세운상가(복합문화)-보행데크-공중보행교(청계천 연계) 보행길을 연결한 1단계 구간이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1967년 건립된 후 50년 만에 세운상가가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개장 이후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시세운광장과 세운데크는 문화공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동서방향 입체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세운-대림상가 간 3층 높이 공중보행교는 '다시세운보행교'라는 새 이름으로 12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연결하여 끊어진 상권을 연결함은 물론 동서 방향으로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도 늘어났습니다. 또 서울 옥상은 남산과 종묘 등 도심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심 전망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고,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운상가 재생의 성공 비결은 초기부터 상인과 소유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과 주도면밀한 주민들의 의견조사가 주효했으며, 전략 수립 등 치밀한 관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세운상가 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2018년 3월 다시세운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고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내는 건강한 서울 청년일자리창출



○ 문의(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33-5457

가능성, 키웁니다

청년이 꿈꾸면 서울시가 실현합니다

청년이 직접 낸 아이디어가 청년의 일자리가 된다? 서울시에선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4대 분야 중 하나인 '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청년, 그리고 민간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직접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그것을 전문기관과 손잡고 실제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6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64개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고, '일자리해커톤'을 개최하여 최종 8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를 뽑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 손잡고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킨 바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청년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앞서 서울시는 2017년 3월 청년 아이디어를 실제 일자리로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총 14곳의 전문 민간기관을 모집하였습니다. 선정된 일자리를 살펴보면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가로 학교 밖 청소년 육성 ▲온라인브랜드매니저로 장애인 청년 양성 ▲노인건강돌봄 청년코디네이터 ▲미혼모와 다문화가정여성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잉(sewing) 공예 취창업지원 ▲쓰레기, 주차, 방범 등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청년 대상 1대1 진로상담 등을 하는 청년컨설턴트 ▲업사이클링 전문가 양성 ▲자전거 인력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투어 등 청년-장애인-여성 등 여러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 사업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였고, 선정 기관들은 전문성과현장성, 기획력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는 물론 청년인력을 실제로 채용하여 직무 및 과업설계,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관련 단체와 협회,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해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들이 관련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일자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해외 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을 갖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업처 확보를 위해 교육 위주가 아닌 취업 가능성에 중심을 두어 해외 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3개 기관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각각 기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해외 취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세웁니다**

투박한 아이디어, 전문가와 손잡으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완성

한편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발굴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100명의 '일자리 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7일 박원순 시장과 25개 전 자치구 청장이 서명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구 공동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100명의 일자리 기획가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자치구별 일자리 아이디어 코칭 ▲실행과정 멘토링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및 분석 ▲청년 일자리 및 뉴딜 일자리 정책 개발 참여 등 일자리 시정 전반에 걸쳐 기획 자문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시와 자치구의 추천으로 50명을 선발한 후, 나머지 50명은 시민공모와 심사를 통해 3~4차에 걸쳐 선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도 계속되었습니다. 청년 스스로 일하고 싶고, 일하기 좋은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모집하였고, 전문가들이 혁신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장성, 공감성을 평가하여 5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0개 '씨앗일자리'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선 일자리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된 일자리기획단 등 전문가 그룹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코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정기적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함께,
해냅니다**

좋은 꿈, 혼자 꾸면 꿈이고 같이 꾸면 일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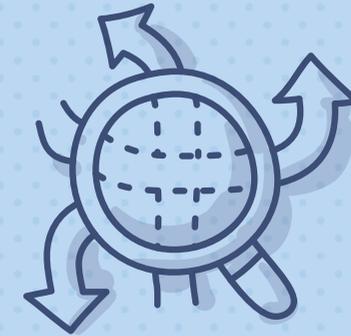
전문가 코칭으로 구체화된 '새싹일자리'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모여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2017년 11월 24일 '청년 일자리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서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발상법이나 행사를 의미합니다. 2016년 공모전과 일자리 해커톤을 통해 제안된 '우리동네 히어로', '노인건강돌봄 청년코디네이터' 등 우수 아이디어 7건은 현재 뉴딜일자리로 발전되어 청년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모전에서 접수된 103팀의 아이디어 중 20팀을 선발하여 진행한 2017 일자리 해커톤은 토론과 의견조정, 상호피드백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심화 개발하고, 이후 멘토의 코칭과 당일 보완된 아이디어를 종합 정리하여 현장에 발표하고 심사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종 9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제안되었던 우수 아이디어 중 8건이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수팀 시상 내역(9개팀)

연번	시상내역	팀명	제목
1	서울시장상	위메이트 (WE : MATE)	노숙자와 유기견 매칭을 통한 청년 전문가 양성
2	우리은행장상	New frontier	농촌, 청년에 물들다
3	명지대총장상	Grand Puppy	노인 반려견 돌보미
4	상명대총장상	친절한 사람들	문화, 예술을 읽어주는 청년 도슨트
5	서일대총장상	청년이랑	도시재생사업 외 효과 청년 농부가 책임진다
6	성신여대총장상	서울시 마음속에 일자리 저장	질병 맞춤형 요리 교실
7	숙명여대총장상	따르릉 두자	자전거 교통 보안관
8	한국외대총장상	청파누리	여행누리(장애인 여행 전문 코디네이터)
9	건국대총장상	일코노미	1인 가구를 위한 전통시장 공동구매 사업

협치로, 다채로운 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협치로, 다채로운 서울

- 2-1.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 2-2. 청년예술인지원사업
- 2-3.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 2-4. 문화비축기지
- 2-5. 서울로 7017 개장 및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사업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artcityseoul>
- 문의(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02-2133-2717

가능성, 키웁니다

미술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시민발굴단'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우수 공공미술 작품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시민 주도로 공공미술사업을 제안하는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술·문화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바르게 알리고, 활동에 따른 공공미술 이론교육 및 토론, 활동주제 선정 등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수료한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은 워킹그룹별로 활동을 하며, 답사 코스별로 공공미술 작품을 취재하여 그룹별 활동을 리뷰하고, 취재 내용을 공공미술시민발굴단 페이스북 등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공유합니다. 2016년 처음 구성되어 활동한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은 주변의 우수 공공미술 작품들을 발견해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관리가 부실한 미술작품들을 개선토록 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및 주제별 관광코스를 5개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부실 등 개선이 필요한 공공미술작품 10점을 찾아내 관리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서울에 흠어져 있는 공공미술 속 이야기 찾아 재탄생

서울시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150명의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을 모집하였으며, 이 중 사전교육을 마친 101명의 단원들이 최종 선발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전교육은 4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공공미술의 어제와

오늘, 내일 △공공미술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효과적 방법 △시선을 담는 사진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미술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문 큐레이터 11명이 공공미술시민발굴단의 활동을 이끌며 워크숍 운영, 활동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배포, 그룹활동 관리, 활동보고서 취합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2017년 공공미술시민발굴단으로 선발된 101명의 단원은 큐레이터가 제안한 11개의 활동주제 중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조 편성을 마친 후 5월부터 그룹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주차에 걸쳐 그룹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그간의 활동과 발굴 성과를 발표회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그룹별 주요 활동내역

그룹 (그룹명)	인원 (총94)	주제	주요 활동 내용				
			1주차 (5월 1,2주)	2주차 (5월 3,4주)	3주차 (5월 5주)	4주차 (6월 1주)	5주차 (6월 2주)
1조 (메아리)	9명	도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공공 미술작품 찾아보기	회의 (정동)	경의선 책방길 일대	어린이 대공원 일대	만리동 광장 윤슬	회의2 (정동)
2조 (비주류)	7명	비주류의 공공미술	회의 (광화문)	청량리 (홍릉수목원, 경동시장, 상상장, 청량리588 철거촌)	회의2 (광화문)	을지로일대 (세운상가, 방산시장, 광장시장, 청계천)	증림동일대 (악현성당, 주택가, 서울로7017, 서울스퀘어)
3조 (makeover)	8명	청계천을 중심으로 둘러본 청계천, 종로, 을지로 방면 공공미술품	회의 (강남역)	청계천 을지로일대 (청계광장, 삼일교)	청계천 종로일대 (청계광장, 삼일교)	청계천 아간 풍경	회의2 (종각)
4조 (리본 Re-born)	10명	낡고 오래된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재생'	회의 (동대문)	수색동 물빛마을여행, 봉산공원, 화기직업실, 수일시장	종로3가 (익선동) 한옥거리, 아라리오 뮤지엄인 스페이스, 중앙탕 (전틀몬스터)	문화역284, 수즈트리, 서울로7017, 윤슬	회의2 (동대문)
5조 (움직이는 열손가락)	8명	도시개입을 묻다 : 시민이 주인인 도시	회의 (신촌)	총정로,아현 공덕/도시를 묻는다, 공유지를 묻는다 세미나참석	경의선 책가리, 경의선숲길, 동진시장	회의2 (신촌)	경의선 공유지 재방문

그룹 (그룹명)	인원 (총94)	주제	주요 활동 내용				
			1주차 (5월 1,2주)	2주차 (5월 3,4주)	3주차 (5월 5주)	4주차 (6월 1주)	5주차 (6월 2주)
6조 (마을과 마을 사람들)	7명	공공미술을 찾아 떠나는 마을여행	회의 (서촌)	여의도 우체국 앞 일대	하계역 중계근린 공원+ 천수뚝밭	홍제3동 주민센터 앞 (개미마을)	구로디지털 단지역 (2호선) 2번 출구, 구로공단, 가리봉동
7조 (TIME.U)	9명	기억	회의 (고속터미널)	서대문역 일대	동대문 일대	회현역 일대	회의2 (강남역)
8조 (에너지)	9명	변화 에너지를 주는 공공미술	회의 (정독도서관)	낙산공원, 이화마을, 동송동, 해화동	광화문, 세종로, 정동, 서소문동	성수동, 성수역, 수제화거리	회의2 (종로)
9조 (웃음Play)	9명	공간(나이가 지역) 재생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의 공공 미술	회의 (충무로)	경복궁역 일대 (서촌투어)	해방촌 일대	아현동 행화탕 주변	구기동 부암동 일대
10조 (내눈에 거슬러)	9명	'민폐'라고 생각되는 조형물(공공 미술)을 찾아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	회의 (성북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서울로 7017, 슈스트리	서촌 (언커크일대, (구)옥인 아파트, 수성동계곡, 윤씨가옥)	회의2 (신촌)
11조 (골목대장)	9명	골목대장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개인의 기억과 공공의 공간)	회의 (독섬)	강남구 일대	가산디지털 단지 금천구 일대	수색역 광장 은평구 일대	회의2

협치,
해합니다

다양한 연령 · 직업의 시민들이 발굴한 공공미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

2017년 진행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서울에 흩어져 있는 75개의 공공미술 작품을 발굴 · 추천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위치와 작가, 작품 설명 등을 표기한 지도를 제작하여 관 광안내소 및 시민청, 서울시 및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 배포·게재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행을 방해하거나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작품, 훼손되어 방치된 작품, 안내판이 없는 작 품 등 개선이 필요한 작품들을 찾아 개선을 제안하는 한편, 지하철역사 내 벽면 활용 예술 공간 조성 및 지역의 역 사성을 살리는 공공미술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청계천 '정조대왕능행반차도' 타일 벽화, 중구 필동 '예술통 프로젝트' 등 공간에 어울리며 주민들이 공감할 만한 우수 공공미술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사업은 전년에 비해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공공미 술시민발굴단이 구성되었으며, 작품 설명을 표기한 공공미술 추천 지도와 엽서, 및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발굴단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시하는 등 작·간접적으로 공공미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창작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청년예술인지원사업



문의(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02-2133-2566

가능성, 키웁니다

공연·전시 기회는 착착! 경력은 탄탄!

열정과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부족한 자본과 좁은 활동무대는 젊은 예술인들이 해결해야 할 영원한 과제입니다. 2015년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배고픈 청년예술인은 52.1%에 달했고,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86%가 창작활동으로 인한 월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청년예술인들은 전업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기회가 부족하거나 기존 예술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활동 경력을 갖추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처음으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시행하여 졸업 후 전문 예술인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과도기에 놓여 있는 청년예술단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통해 이제 청년예술인들은 자본이나 기회가 없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작품 활동을 마음껏 해보고 활동 경력을 쌓아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은 서울 전역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다각적 심사 거쳐 105개 예술단 선정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은 무용,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 다원(매체실험) 등 총 7개 분야에서 20~35세의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에 응모한 총 46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105개 예술단체들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하여 서울청년예술단 운영 방향과 기준을 정립했고, 멘토 1인당 예술단 2~3개를 전담하도록 하여 멘토링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구분	총계	무용	문학	시각	연극 (뮤지컬)	음악	전통	다원 (매체실험)
신청단체	466	15	9	54	167	85	45	91
선정단체	105	5	3	11	38	17	11	20



함께, 세웁니다

활동비 뿐만 아니라 멘토링까지 꼼꼼히 지원

최종 선정된 예술단은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5천만 원 내외의 활동비(5인 기준)와 멘토링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서울시는 선정된 예술단체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연계 가능한 사·자치구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단체들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활동하게 된 예술단은 2017년 4월부터 연말까지 총 80회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예술 역량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문화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 공연, 전시 외에도 예술교육 활동,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예술단별로 창작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되 분야별로 결과물 발표 횟수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단체가 빠짐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야	작품 발표 기준 횟수
무용	2개 이상 레퍼토리로 2회 공연
문학	책자, 잡지, 웹 발표 등의 결과물 1개 제작
시각	프리뷰 전시 1회, 본전시 1회
연극(뮤지컬)	1개 작품 이상 공연하되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음
음악	3회 공연 ※등록 공연장에서 1회, 간이 공연장에서 2회
전통	3회 공연 혹은 앨범제작
다원(매체실험)	베이스로 하는 장르(공연/시각)에 따라 해당 장르 기준 준용

**협치,
해냅니다**

청년예술단은 예술성 폭발, 시민은 감성 폭발

서울청년예술단의 활동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실험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전시·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6월에 진행된 전시 및 공연은 다원, 시각, 문학, 연극, 음악 등 총 11건이었습니다.

다원분야의 '몽렙'은 강아지와 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개방회로'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하지를 맞아 '여름은 사랑사랑'이라는 계절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문학분야의 '이서구'는 젊은 이십대 청년 시인들이 모인 단체로 시를 원료로 시인과 독자가 서로 마주하기 위해 팟캐스트, 인터뷰, 낭독회 등을 열었으며, 문학잡지 '가드레일'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각단체인 '불량선인'은 낡고 오래된 강남아파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시 괴담의 생성원인 및 동시대 괴담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극단 '낮선사람'과 '낭만씨어터는' 각각 뮤지컬 교실 수강자들과 함께하는 갈라쇼 공연과 음악낭독극을 개최했습니다. 음악분야의 청년단체들도 클래식부터 록, 인디음악까지 특색있는 연주와 레퍼토리로 음악의 아름다운 매력을 느끼게 해줄 다채로운 공연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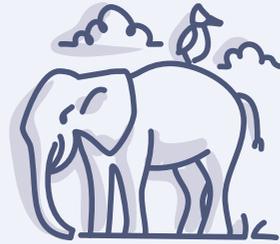
'아이네파우제'는 유명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하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었고, 영화 속 OST를 감상하는 공연도 개최하였습니다. '라벨라엔유'는 라디오 형식을 차용하여 사연을 읽으며 진행하는 오페라콘서트로 색다른 형식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컴퓨터와 신디사이저 기반의 전자음악 단체인 '키피'는 정기공연을, 브라질 삼바음악을 토대로 연주하는 '화분'은 기획공연을 진행하여 개성 넘치는 음악적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전시와 공연의 열기는 8월에도 이어졌습니다. 8월에는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분야의 예술단이 4건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무용분야는 5개 단체가 모두 모여 합동 쇼케이스 공연을 펼치면서 멘토와 시민 앞에서 4개월 간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인티나인아트프로젝트'는 시민을 대상으로 노트댄스 워크숍 과정을 퍼포먼스화한 공연을, '예술집단 꾸니'는 소리에 집중하여 노동요 혹은 노동을 주제로 한 공연을 올렸습니다. '다크서클스컨템포러리댄스'는 클래식 발레를 기본으로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들에 대한 풍자를 현대적인 움직임과 춤으로 선보였는가 하면, 몸으로 만들어내는 메시지로 관객과 소통하는 '탭댄스프로젝트'는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에 대한 이미지를 춤, 미술, 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요소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젼댄스컴퍼니'는 각설이를 소재로 한 많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한 연희로 풀어내었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호밀'이 음악과 연극이 함께하는 낭독극을, 전통과 음악분야에서는 'ensemble PHASE'가 악기 구조와 음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공연을 소극장에서 올렸습니다. '엑시트'는 익숙한 명곡들을 아카펠라 버전으로 선보였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예술을 탐구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만들어요!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 문의(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02-2133-2044

가능성, 키웁니다

예술로 동물의 생태와 존재가치를 이해하는 '예술동물원'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협치를 통해 도심 속 공원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숲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원 내 여가문화 역시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무차별적인 포획 등으로 한국의 동물 보호 서식지는 파괴되었으며, 생물종의 급격한 멸종 또한 초래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해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법정보호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보호종은 246종에 이릅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동물 학대, 동물 실험 등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동물에게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어, 서울시는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고(동물보호과, 2016년 10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원과 식물원, 공원에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자 인간과 생물이 함께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생태교육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만들고, 공원과 동물원을 결합한 예술동물원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친화적이면서 생태적인 다양한 체험 기회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길, 만듭니다

아카데미·워크숍·전시회, 시민 공감 속에 성황

예술동물원 프로젝트는 크게 사전설명회인 '예술동물원 동행파티'를 시작으로, 도시숲 및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시민력 향상을 위한 예술동물원 아카데미, 다양한 시민 체험을 위한 전시회, 기존 타 공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체험 행사, 예술동물원 홍보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9일 예술가, 동행숲네트워크 회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동물원의 사전설명회인 동행파티를 열어 사업 안내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동물 없는 동물원, 예술동물원'이라는 주제로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배워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술가 아카데미는 총 4회에 걸쳐 116명이, 시민 아카데미는 5회에 걸쳐 245명이, 합동 워크숍은 2회에 85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예술가 아카데미 참여자 중 24명은 전시회에도 참여하여 뜻을 이어갔습니다. 예술동물원 전시회는 9월 14일~21일 선유도공원 이야기관에서 개최되었으며, 24명의 작가가 32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되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멸종위기 동물, 서울시보호종 등 동물보호를 모티브로 한 그림, 조형물, 동물가면, 동물인형 등이었으며, 멸종위기 생물종가이드북도 제작해 관람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술동물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함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작품제작을 진행하여, 본 취지를 작품 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 원목을 잘라 그 위에 네임펜으로 동물 그림을 그리는 체험, 폐지에 채색을 해둔 조각으로 '새'를 만드는 체험, 페트병과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어 식물을 심어 보는 체험 등이 마련되어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10월 서울역새축제와 11월 남산둘레길 걷기 축제에 참여하여 도심 속 공원이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체험부스와 캐릭터 작품 전시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추진 일정

월별	민관협업체	동행숲 아카데미	예술동물원
2월	구성(2.22)	-	-
3월	정례회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4월			
5월	협치실행 워크숍	동행파티	
6월		아카데미 운영 (6월~8월)	-
7월	중간평가		
8월	정례회의		- 예술동물원 홍보 캠페인 실시 (8~11월) - 예술동물원 전시회(9월)
9월			
10월		-	
11월	연말평가	-	〈연계사업〉 - 서울역새축제 참여(10월) - 남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여(11월)
12월			

함께,
세웁니다

민과 관이 만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든다

예술동물원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동행숲네트워크가 민관협치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2월 민관협업체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였으며, 2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의 협업체 회의를 통해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은 물론,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민관 속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협치 과정에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담당 공무원과 문화 기획자, 예술가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의미있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 민관 협치 역할 분담

구분	역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수립, 사업평가(성과보고), 각종 의사결정 홍보방안 마련·실행 등
민	동행숲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실행방안 수립·실행과정 참여 민간 전문가(단체) 섭외, 전문 용역업체 추천 동행숲 내 의견 수렴 및 전달
官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녹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업체 구성·운영 예산 배정, 집행, 정산 등 기존사업 연계방안 발굴·실행 공원 관련 자료 수집·제공 공원 이용 장소 제공, 시설 이용 협조 등
관계 전문가·시민 유관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별·사업별 민관협업체 회의 참석, 의견 제공 행사 홍보 및 운영 협조 등

협치,
해냅니다

예술을 통해 도시숲의 가치를 확인하다

서울시는 예술동물원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참여 예술가들의 인터뷰 기사와 스토리텔링 형식의 기획 기사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캠페인 홍보 동영상 3편과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2017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예술동물원 프로젝트'를 통해 동물들을 동물원이라는 우리에게 가두어 사육하고 사람들은 관람하러 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동물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해야 하며, 동물이 행복한 숲을 만들어가야 함을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 속 공원을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술을 통해 동물들의 생태와 존재가치를 이해하고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민관협치로 공원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였고, 기존 공원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큰 상승효과를 얻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의 힘을 보여준 '여섯 빛깔 탱크' 문화공간 문화비축기지



- 홈페이지 : <http://parks.seoul.go.kr/culturetank>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ulturetank>
- 블로그 : <https://culturetank.blog.me>
- 문의(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 02-376-8733

가능성, 키웁니다

흥물스러운 오일탱크, 41년 만에 문화시설로 돌아오다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비상시를 대비한 유류저장시설로 1976년 건설된 총 14만㎡ 규모의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실내·외 공연장, 전시장, 공원 등을 갖춘 시민 문화시설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급 보안시설로 설치 이후 시민들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한일 월드컵을 위해 2000년 이전 폐쇄된 이후에도 10여 년간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잊혀진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암동 일대가 첨단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쓰레기 매립지는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으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고, 마포 석유비축기지 역시 거대한 탱크 5개를 매설해 석유를 저장했던 유류가 드문 산업유산으로서 뒤늦게 숨겨진 잠재력과 가치를 주목받게 되면서 활용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5+1 탱크'가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공간

문화비축기지는 문화와 사람, 자연으로 채워진 대표적인 도시재생 공간으로 축구장 22개와 맞먹는 규모로 부지 가운데 공연, 장터, 피크닉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6개의 탱크(T1~T6)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탱크들은 내외장재, 옹벽 등 하나부터 열까지 기존 자원들을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도시재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열린 공간 T0(문화마당)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야시장을 만날 수 있으며, 친환경마을장터 '달시장'과 다양한 먹거리, 핸드메이드 상품이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이 이미 많은 시민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120명 내외가 이용할 수 있는 T1은 야외가 훤히 보이는 유리 파빌리온으로 공연, 전시, 제작워크숍 및 요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탱크를 해체한 후 남겨진 콘크리트 옹벽을 활용하여 만들어 암반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T2는 상부 야외무대와 하부 공연장으로 꾸며졌는데, 특히 상부 야외무대는 개방된 공간으로 공연이 없는 날 시민들의 휴게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3는 석유비축탱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탱크 원형을 그대로 보존했으며, 탱크 내부 형태가 독특한 T4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존 탱크 안에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된 투명 탱크가 들어간 형태이며 탱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과 파이프 기둥 등은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T5는 석유 탱크 바깥 보호 옹벽을 사용하는 이야기관으로 석유비축기지가 어떻게 문화비축기지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360도 영상 상영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6는 탱크 1:2에서 건너편 철판을 재조립하여 신축한 건축물로, 여기서는 다양한 공연워크숍과 창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 누구나 방문해 서울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열람실 및 카페, 회의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30개월간 민관협치로 아이디어 공유하며 재생에 반영

2012년 고건 전 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현장답사를 한 이래, 2013년 기본 구상 및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후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약 30개월간 연인원 1,126명(설계자문 568명, 워킹그룹 558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석유비축기지를 시민들의 문화비축기지로 성공적으로 재생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완벽한 설계, 최적의 운영방식 결정, 최상의 운영프로그램 개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덕분입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설계자문위원회와 협치위원회, 개원준비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1·2차 공개토론회, 시민 아이디어공모,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시민토론회, 전문가 워크숍, 현장설명회, 국제 현상설계공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15년 8월 20일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2015년 12월 30일 착공에 들어간 이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2016년 11월부터 매주 개원 준비사항에 관한 정례 점검회의를 총 27회를 진행한 결과, 꼼꼼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이로써 1급 보안시설로 41년 간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연중 축제와 공연·전시가 열리고 시민 시장이 열리는 '문화비축기지'로 변신하여 2017년 9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협치,
해냅니다**

설계부터 운영까지 시민과의 소통·협업으로 이뤄내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민주도형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적용한 데 이어 앞으로의 운영도 시민협치위원회 중심으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탈석유 시대 문화생산의 장소이자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공원으로서 민관협치형 시민파트너십 확장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치위원회를 2017년 2월 구성하였습니다. 총 15명의 협치위원이 위촉되어 문화비축기지 개원과 공간운영 정책 마련을 위해 2017년에는 총 36회의 회의와 워크숍이 운영되었으며, 2018년 8월까지 총 34회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문화비축기지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자문·결정 등의 주요 사안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 문화비축기지 정책과 운영을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채워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비축기지의 운영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구축, 공원가꾸 만들기, 도시텃밭 가꾸기 등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독특히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공간 있는 길'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길' 되다 서울로 7017 개장 및 운영



- 홈페이지 : seoullo7017.seoul.go.kr
- 문의(서울로 운영센터) : 02-313-7017

가능성, 키웁니다

철거 위기 서울역 고가도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탄생

서울역 고가도로는 1969년 3월 19일에 착공하여 1970년 8월 15일에 개통됐으며, 2015년 12월 13일 폐쇄되기 이전까지 45년 동안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서울역 고가는 당시 근대화를 상징하는 서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는 막을 수 없었고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철거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와 함께 재활용이 검토되었습니다.

서울로 7017은 '1970년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17개의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낡은 고가도로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한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과 철학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은 고가도로를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였고, 서울로 7017은 보행길의 확보에서 나아가 인근 지역을 서로 잇는 도시재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하나하나가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한 랜드마크

서울역 고가 재생 사업인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안전의 문제로 철거 예정이었던 서울역 고가도로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과 축제 및 행사가 진행되는 '보행전용도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서울역 고가의 운명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철거가 아닌 서울역 고가의 기능전환을 통한 보존과 재생을 꾀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29일에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철거가 아닌 재활용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함으로써 랜드마크 만들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4월까지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진행되었고, 2015년 5월 서울역 고가를 나무로 형상화, 주변과 연결하는 네덜란드 건축가 위니마스(Winy Maas)의 '서울 수목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서로 지역적으로 단절되었던 도시적 맥락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 각 연결로들을 통해 인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동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로 7017에는 총 17개의 또 다른 길이 설계되었으며, 회현동 방향 구간에 인접한 고층 빌딩 중 대우재단빌딩과 호텔마누가 서울로 7017과 연결되는 연결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평등하게 보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행 편의를 고려해 만들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의 쉬운 접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상의 보행자 유입과 지하철과의 연계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도입했습니다.

◆서울로 7017 보행로 동선 연결



서울역 고가 보수·보강공사는 바닥판 철거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시되었으며, 토목, 조경, 건축, 전기, 통신, 기계 공사가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실시되어 2015년 12월 18일 철거공사가 착공된 지 18개월 만인 2017년 5월 20일 서울로 7017이 개장되었습니다.

주변 건물과의 연결 편의를 위하여 인근 2개의 대형빌딩(대우재단빌딩, 호텔마누)을 각각 연결하는 통로를 시공하여, 서울로 7017에서 대형건물 연결통로를 통해 건물에 입주한 직장인들은 보행길로, 서울로 7017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건물을 통해 남산공원, 남대문시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서 서울로에 접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리동광장, 중림동, 청파동 등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연결계단을 설치했습니다. 보다 좋은 조망을 위하여 지상 13m 이상의 높이에서 승례문과 서울역, 한강대교 등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 테라스를 설치하였고, 새로운 도시 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일부 바닥판을 투명강화유리로 시공하여 지상 17m이상의 높이에서 투명창을 통해 하부의 철도나 도로, 주요 광장 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로 7017은 보행전용 녹지공원이자 공중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경공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보행길에 50과 228종 24,085주의 수목이 식재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로 7017' 메인 보행길 상부에 23,658주, 만리동 광장에 218주, 퇴계로 교통섬(서울스퀘어 인근)에 209주가 심어졌습니다. 서울로 중심 보행길(1,024m)은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645개의 원형화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린이 셋이 두 팔 벌려 껴안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지름 1,240mm, 둘레 3,893.6mm)부터 12명 이상이 안아야 할 정도의 초대형(지름 4,800mm, 둘레 15,072mm) 화분까지 66가지의 다양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과 만나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우려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 상권위축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재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집단민원과 반대집회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600여 차례에 걸친 시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7017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장방문 및 면담 203회, 간담회 및 토론회 158회, 전문가 자문 9회, 기타 163회 등 총 615회의 소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성과로 남대문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4일 남대문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2015년

8월 21일 주변 빌딩 연결통로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반대로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통한 서울역 일대의 활력회복에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역 배후로서의 관광기능 강화, 남대문 시장 발전을 위한 지원, 봉제·수제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기대를 보내주셨고 서울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협치,
해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녹색의 걷는 도시 서울' 구현해내

서울로 7017 개장에 앞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가의 안정성을 꼼꼼히 체크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시민 총 400여 명이 참여한 '서울로 현장 사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및 관련 단체, 어린이, 주민, 시민기자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다각적인 시각에서 시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했습니다.

또한 서울로 7017을 널리 알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로 7017 사진 및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서울역 고가 만화전, 서울로 7017 미리보기 인포가든 등을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2017년 5월 20일에 서울로 7017이 개장된 이래, 한 달 만에 방문객이 203만 명에 달했으며, 개장 1주년을 맞는 2018년 5월에는 누적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은 하루 평균 3만 명, 평일은 2만 명이 꾸준히 찾았습니다. 연령대별 방문객은 20대(26.1%)와 30대(23.9%)가 가장 많았고, 서울로 진입 구간별로는 서울역광장(41.1%)과 남대문시장(19.7%)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도 개장 이래 약 200만 명이 다녀갔는데, 대만(18%), 일본(13%), 홍콩(10%) 등 아시아권 비율이 높았고, 서구권 국가는 미국(10%), 캐나다(3%), 프랑스(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민관 거버넌스 운영모델 도입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컸기 때문으로, 개장 후 1년 간 '초록산책단'이라는 이름의 개인자원봉사자 174명이 식물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내 등에 참여했고, 인근 기업의 단체,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8,000명이 함께 서울로 7017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시는 개장 1주년을 맞아 보행 유형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주변 지역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보행 전문가들과 함께 선진 보행 도시로 가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협치로, 힘이 되는 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협치로, 힘이 되는 서울

- 3-1. 무(無)장애 관광도시 조성
- 3-2. 서울복지거버넌스
- 3-3.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협치 사업
- 3-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 관광약자도 행복한 서울관광 시대 열다! 무(無)장애 관광도시 조성



- 서울시 관광정책과 : 02-2133-2824
- 서울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 1670-0880

가능성, 키웁니다

관광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관광향유권 확대를 통해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을 위한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어르신 등 관광약자가 필요한 여행정보에 접근하고, 관광을 즐기기에 아직 여러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시설 및 보행시설 등 생활권 내에서 관광약자들의 이동권이 상당수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서울을 제대로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관광약자도 불편 없이 즐거운 서울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무(無)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 수는 39만 명,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2015.4.)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87.4%가 국내여행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편의시설의 부족, 여행 상품의 부재 등이 주요한 불편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관광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관광(Tourism for All)을 실현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국제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2018~2022년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서울시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2017년 4월 장애인 및 관광업계, 시의회, 시 유관부서 등의 전문가 19명으로 이뤄진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관광환경 조성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관광복지 관점에서 관광약자의 보편적인 관광 향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4대 분야에 걸쳐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2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될 4대 분야는 물리적 환경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며, 2018년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① 물리적 환경 개선	② 물리적 환경 개선	③ 물리적 환경 개선	④ 물리적 환경 개선
①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⑤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⑧ 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 정보 제공	⑩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②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 시행	⑥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⑨ 문화시설 수화언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⑫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③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⑦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	⑩ 「서울다누림관광센터」 개설·운영	
④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협치,
해냅니다**

무장애 여행코스 및 편의시설 늘리고, 서울다누림관광센터도 오픈!

2017년 6월 서울시와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동 차량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및 유류 지원, 운전기사 지원, 경비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2017년 장애인 4,864명 지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어르신·청소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특성 및 관광 욕구를 반영한 여행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일 코스로 서울 명소 탐방에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 243명, 1박 2일 코스로 서울 및 지방 명소 탐방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 10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밖에도 2017년 9월 공정관광 국제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주제 아래, UNWTO(세계관광기구) 공동세션을 개최하여, 장애인 및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장애인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애 관광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무장애 서울 여행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원년을 맞아 관광약자에게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편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2018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관광약



◆ 지원대상별 특성 및 관광욕구를 반영, 여행프로그램 설계·운영(17.9~11월)

서울지역 명소탐방(1일 코스)	서울·지방 명소탐방(1박 2일 코스)
243명(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108명(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 맞춤형 여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무장애 관광정보를 통합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다동 관광특구를 무장애 관광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비를 1개소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여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관광약자별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관광콘텐츠와 여행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올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여행활동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서울시 릴레이트립 시즌 2

선택의 즐거움이 있는 모두에게 열린여행

- 여행기간: 5월 ~ 10월 (7 - 10월 휴식기 제외)
- 모집기간: 4월 4일 (금) ~ 4월 23일 (월), 19일
- 참가대상: 서울 거주 장애인, 저소득층
- 신청방법: 구로구청에 방문접수 가능
- 문의처: (02-5541-3777)

역사
*1일 무어
월광사적 / 봉선사적 / DMZ무어 / 고지적
*1박 2일 무어
연탄마을무어 / 동탄마을무어 / 오죽헌 / 불암사

체험
*1일 무어
종이공예 만들기 / 공예 / 공예 / 공예
*1박 2일 무어
오죽헌 체험(공예) / 생생이공예 / 불암사 체험(공예) / 불암사 체험(공예)

자연
*1일 무어
서울타워 오케이징 / 한강공부초 / 체험동행물 초추
*1박 2일 무어
대관령 일출무어 / 설악산 케이블카 / 낙산사 / 고을체험

치유
*1일 무어
요강사 웰니스센터 / 약대행복동
*1박 2일 무어
달리노. 안락물 프로그램 / 두물머리

우리가족이 함께 쓰는 추억일기!
두근두근, 희망날!

여행기간: 2018.06.05(화) ~ 06.14(목) 총 10일간

여행일: 2018.07.12(화) ~ 07.16(토) 3박 5일

참가대상: 서울 거주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여행일: 2018.05.21(월) ~ 서울시 홈페이지 24시간 게시

문의처: 서울시 관광정책과 T. 02-2133-2828

소통과 참여를 확대합니다 서울복지거버넌스



○ 문의(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02-2133-7352

가능성, 키웁니다

2기는 복지의 주인공 '시민'에 초점 맞춰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민·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통한 서울의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간 관리자, 현장 실무자, 서울시 행정가 등 3개의 참여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관리자는 법인 및 시설 대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실무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시 행정가는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자치구 공무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역할에 따라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2년의 임기 동안 각각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분과 위원장, 공무원, 유관 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획조정위원회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각 분과 간 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분과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기(2014~2015년) 활동에서는 민관의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기(2016~2017년) 활동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즉 복지의 주인공 공인 '시민'으로 관심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각 분과마다 분산되어 있던 활동 방향이 서울복지거버넌스 2기에 접어들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 서울복지거버넌스 조직도



새길, 만듭니다

워크숍으로 거버넌스의 역할과 정체성 합의

서울복지거버넌스는 2017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체 166명의 위원 중 120여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워크숍은 서울복지거버넌스의 비전과 역할, 그리고 분과별 세부 활동을 합의하고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서울시 복지본부장과 시민건강국장 등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 워크숍으로서 협치에 대한 신뢰와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개별 분과 중심의 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분야 간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꾸준히 논의해온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서울복지거버넌스 비전 선언문'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2014년 1월에 만들어진 선언문에 보편적 복지 개념을 추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선언문에 비해 한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워크숍을 통해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복지거버넌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 구성원들은 서울복지거버넌스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보기도 하고, 행정의 요식절차로 이해하기도 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관점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들은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앞으로 수행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복지거버넌스 비전 선언문]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및 복지 현장 분야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루고자 한다. 우리의 활동으로 시민 누구나 복지에 쉽게 접근하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웃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역할]

- (제안자) 시민 삶에 기반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요구를 전달하고 방향 제안
- (공동의 실행자) 시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민·관 및 영역간 협력사업 실천
- (정보와 정책의 전달·전파자)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시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전파



함께, 세웁니다

퍼실리테이션교육으로 회의운영, 소통 능력 향상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소통과 회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관 협치 조직인 만큼 회의 운영과 사업 기획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협업 및 소통에 대한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화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마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각 분과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6년 말 실시한 민간부문 위원 대상 퍼실리테이션 교육에 이어 2017년에는 공공부문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에서는 회의운영, 워크숍 실천 연습 등 퍼실리테이션의 이론부터 실천까지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16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교육시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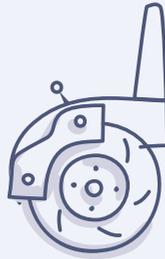
함치, 해냅니다

충족한 네트워크로 복지서비스는 더 꼼꼼하게

서울복지거버넌스 2기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는 서울복지거버넌스라는 조직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내가 아닌 '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는 실행 위원들의 거버넌스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협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2기에는 각 분과마다 주요 사업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 거버넌스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각 분과들은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지향하며, 기존의 복지 대상인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의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본래 목적에 더욱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조사연구 사업이나 복지 인프라 구축 같은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민간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민·민의 소통과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복지거버넌스 2기에는 실행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민간 기관들 간의 이해가 확대되고,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여러 개의 분과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관협치로 장애인 인권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서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협치 사업



문의(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02-2133-7456

가능성, 키웁니다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탈시설 정책

서울시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돕는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시설보호가 지닌 한계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주목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차이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혼란이 있었고, 탈시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간 서비스 수준 격차도 심했습니다. 또한 탈시설은 장애유형, 개인별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시설 이용인들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공과 민간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치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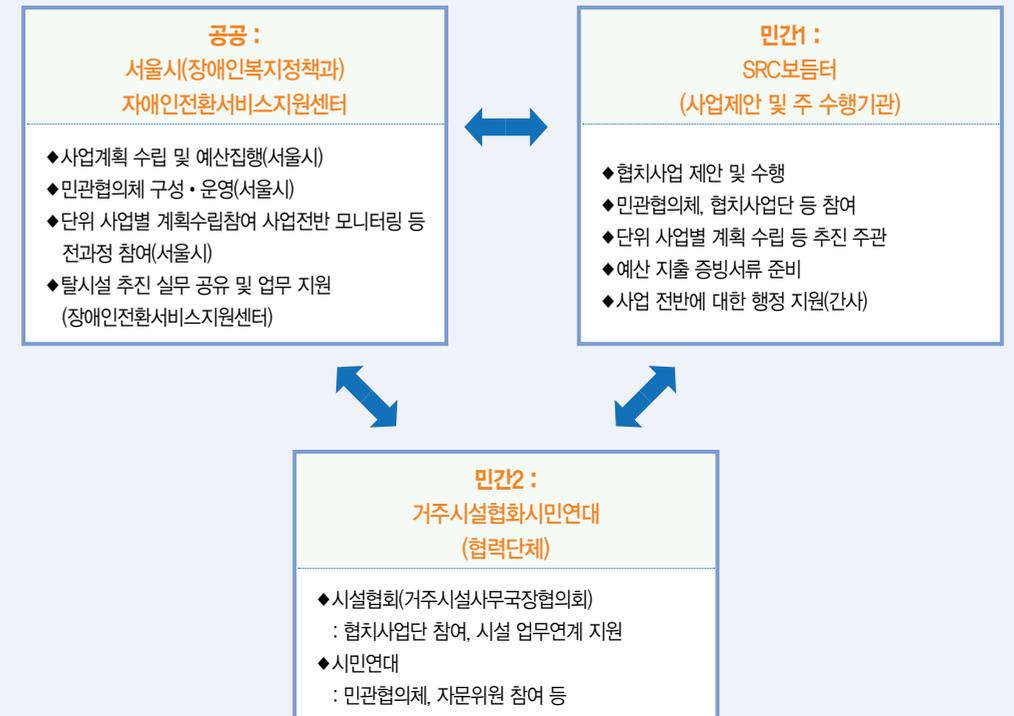
새길, 만듭니다

민관협의체와 협치사업단 별도 운영으로 실행력 강화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2016년 초 정책 변화에 맞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화 촉구방안 마련을 제의하였고, 2016년 7월 장애인거주시설인 SRC보듬터가 협치 의제를 발굴하여 제안했습니다. 이후 협치 의제를 서울시와 제안단체가 함께 검토한 후에 협치사업으로 신청하여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에 협치서울 의제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와 실무 협치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협의회를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탈시설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장애인거주시설과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협치사업단은 민간 8명과 공공 3명으로 구성되어 총 11명이 활동하였으며, 주요 활동 사항은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지원 업무가이드북 제작 실무, 협치교류회 및 협치세미나 개최, 민관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협치자문단 구성 등입니다.

◆협치사업 추진 체계도



**협치,
해냅니다**

서비스 향상 위해 42개 시설 모니터링 및 업무가이드북 배포

서울시는 2017년 장애인 탈시설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와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1년간 총 13회의 회의(민관협의체 5회, 협치사업단 8회)가 개최되어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의 자립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지원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이용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지원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42개소를 모니터링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관계자 및 이용자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워크숍 및 세미나, 세 차례의 자립협치교류회를 개최하여 거주자시설 종사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인식 차이를 이해하였으며, 탈시설 실천 전략 및 활동 계획에 관해 합의하고, 탈시설을 위해 실행해야 할 우선 과제 발굴 및 역할모색을 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용자 중심의 자립지원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자립지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현안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시설변환 모델 연구단 및 협치 실행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권역별 토론평의, 종사자와 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 이용자 자립생활 역량강화 소통 교류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human/goal.do>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welfare.seoul>
- 문의(행정국 자치행정과) : 02-2133-5834

가능성, 키웁니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약칭 '찾동')는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상교육 및 기초연금 전면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등 복지업무 및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동주민센터에 모든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갈때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2013년 기간 중 서울시 복지대상자는 73% 증가한 반면, 복지담당 공무원 증가는 18%에 그쳐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장안동 독거노인 자살 사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기가정의 발굴 및 지원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위기가정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문제 및 복지재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3단계 시행에 따라 만반의 준비 완료

서울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패러다임을 책상에서 현장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에서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면 혁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선언하고(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출범(2015년 7월)하여 본격 시행했습니다. 2015년 7월에 1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14개 자치구 283개 동으로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24개 자치구 342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3단계 추진이 시작되는 2017년 7월에 맞춰 서울시는 474명의 동주민센터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인력 충원에 따른 공간 재배치 및 주민 공유 공간 확대 등을 위하여 59개 동주민센터 청사의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때 자치구별로 MP(Master Planner)를 선정하고, 동주민센터별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자치구·동 직원과 주민이 함께 공간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찾동 서비스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실행 계획 수립·보완 과정을 거치고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찾동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인 추진지원단을 자치구별로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 직원 교육 및 민관 협업 촉진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 찾동 시행 지역 : 총 24개 자치구 342개동

- ▶ 1단계('15.7~) : 80개동(전면시행 4개구, 시범시행 9개구)
- ▶ 2단계 확대시행('16.7~) : 283개동(전면시행 13개구, 시범시행 1개구)
- ▶ 3단계 확대시행('17.7~) : 342개동(전면시행 20개구, 시범시행 4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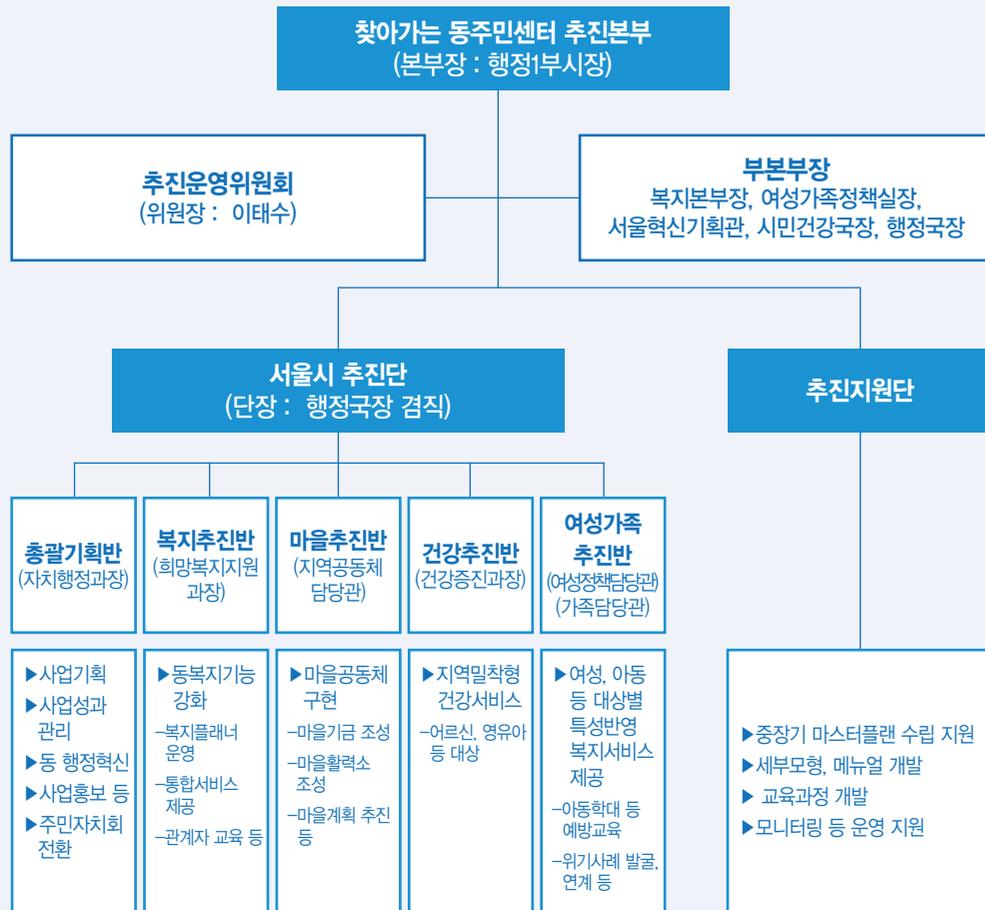
함께, 세웁니다

민관이 함께 찾동 서비스를 위해 한 노력들

2017년 7월부터 3단계 찾동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사자치구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사업이 잘 정착되는지를 살피고, 자치구·동을 컨설팅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사업모형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찾동 방문인력 필요물품 수요조사 및 보급이 진행되어 342개동에 스마트워치 1,049대, 응급호출기 366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시범 사업을 고독사 다발지역 3개동에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웃돌봄단'을 시범 운영하여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력을 10개 자치구 68개 동에서 공모·선정하여 341명(2017년 12월말 기준)이 활동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찾동 추진단과 추진지원단이 참석하는 민·관 합동 연석회의를 매주 실시하여, 사업 참여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업 설계 및 보완,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교육·모니터링·성과관리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석회의는 2017년 42회 개최되었으며, 회당 25~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찾동 추진운영위원회를 2017년 3회 개최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본부 구성 현황



협치, 해냅니다

찾동 현장 방문 2.6배 증가, 복지 신규 상담 45% 증가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장 방문이 대폭 증가하여 동별 월 평균 147회(2017년 6월 기준)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 이전 57회 대비 2.6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동별 월 평균 복지 신규 상담도 45% 증가하여 찾동 시행 이전 282회에서 시행 후 409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정에 맞는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기반도 마련되고 있어, 1·2단계 마을계획단이 49개 구성되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계획 단원은 4,960명으로 동 평균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49개동 마을총회 주민투표에 36,059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동주민센터의 혁신모델로 전국적인 인식 확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 19일)에서도 찾동의 기본 정책 요소가 적극 수용되었을 뿐 아니라 최우수 지방 시책으로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2017년 8월 31일)했습니다.

2018년 시작되는 4단계 찾동 사업은 시범 시행 1개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408개동으로 확대 시행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66개 동의 공간 개선이 진행되고, 주민 공간 확대 설계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력도 사회복지공무원 239명, 방문간호사 78명, 마을사업전문가 7명 등 총 324명이 총원됩니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 교육과 현장방문용 전기차량 배치, 서울시 총괄조직(행정국)의 5대 분야 간 조정·협업 촉진 기능 강화, 서울시-자치구 간 사업 합동 진단 및 토론회를 통한 발전 방안 도출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로, 든든한 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협치로, 든든한 서울

- 4-1. 먹거리시민위원회
- 4-2. 도농상생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활동가 양성
- 4-3.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 4-4.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4-5.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운영

서울시민과 함께 '먹거리 기본권' 지켜나갑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



○ 문의(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02-2133-4709

가능성, 키웁니다

누구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먹거리 기본권'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고,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2017년 6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2020)을 세워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건강한 먹거리', '먹거리 보장', '상생을 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5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7년 9월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11월에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먹거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체계도

비 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핵심가치	건강, 보장, 상생, 안전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역량강화 ○ 모든 시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음식섭취를 위한 먹거리 지원 ○ 먹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농산물의 공공조달 확대 ○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 먹거리 활동 주체 간 협력과 참여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5대분야 26과제)	① 건강한 먹거리 (5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5.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② 먹거리 보장 (5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화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③ 상생을 위한 먹거리 (5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④ 안전한 먹거리 (7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3.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4. 유전자변형식품(GMO)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7.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⑤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 체계 마련 (기본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외 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2.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실행 전략 수립 내 부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2. 서울 먹거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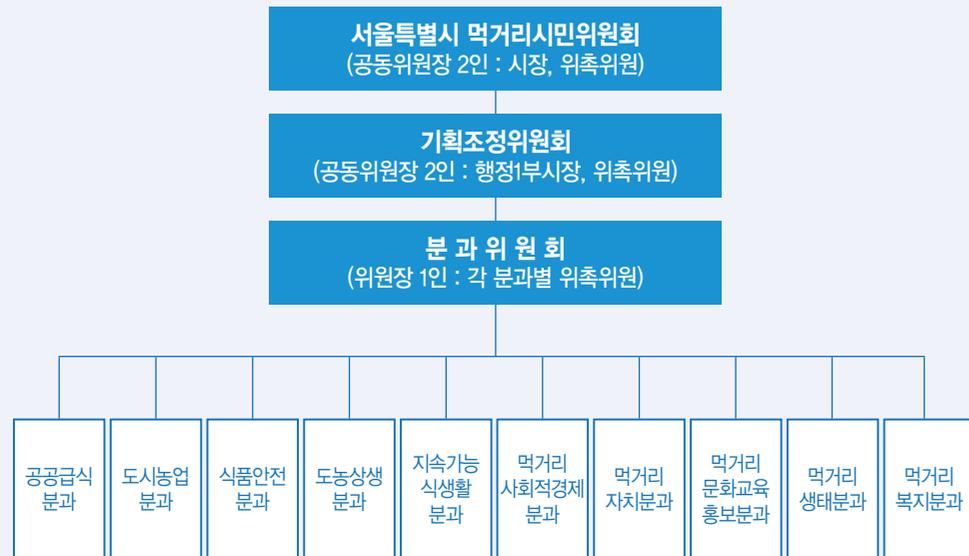
새길, 만듭니다

시민·전문가·시민단체 138명 구성, 10개 분과위원회 협치로 운영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식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민관 협치를 추진, 3년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많은 시민과 전문가, 학계 등과 소통해 왔습니다. 먹거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2017년 6월 20일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2020)을 수립하였고,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건강과 안전이 중심이었던 식품 정책을 복지 등으로 확대한 최초의 먹거리 융합 정책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민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개최한 먹거리 마스터플랜 토론회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업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017년 10월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한 결과 총 254명이 접수되었으며, 위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38명으로 구성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2017년 11월 2일 출범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을 위촉방식별로 살펴보면 공개모집 71명, 기존운영 위원회 3개 분과위원 등 추천 50명, 임명직 17명이며 분야별로는 일반시민 14명, 시민사회단체 25명, 학계·전문가 21명, 유관기관 10명, 식품·산업계 25명, 시의원 6명, 서울시 17명, 지방자치단체 7명, 언론 등 13명입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체계도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 구성 현황

먹거리시민위원회	선정 인원	선정내역				
		임명	위촉(121명)인원			
			추천	공개		
총 계	138	17	50	71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1	1	-	-	
당연직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6	6	-	-	
추천	① 공공급식분과위원회	15	1	14	-	
	② 도시농업분과위원회	15	1	14	-	
	③ 식품안전분과위원회	13	1	12	-	
	공개 모집	④ 도농상생분과위원회	15	1	-	14
		⑤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12	1	-	11
		⑥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13	1	-	12
		⑦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11	공공급식겸임	3	8
		⑧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11	1	-	10
		⑨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12	1	5	6
		⑩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4	2	2	10

※ 위촉 위원 121명 중 남 61명(50.4%), 여 60명(49.6%) / 장애인 2명(1.7%)

협치, 해냅니다

찾동 현장 방문 2.6배 증가, 복지 신규 상담 45% 증가

서울시는 2017년 11월 2일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형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출범하고,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본격 실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 방향 수립, 정책의 통합·조정과 먹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203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문

서울시민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굶거나 질이 낮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을 선언합니다.

1.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모든 시민, 특히 경제적 취약층과 건강 취약층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급식 분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서울시민, 나아가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식량보장을 위해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중소 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형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안전 하고 건강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 보건·복지·고용·주택·도시 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을 통하여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 먹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 먹거리는 개인과 집단, 사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서울시민의 음식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서울 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 지속 가능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폭넓게 참여 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가치를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협치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도시와 농촌, 사람과 먹거리를 잇다! 도농상생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활동가 양성



문의(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02-2133-4147

가능성, 키웁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먹거리 약속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서울시는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영양과 위생 중심의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연결하여 공공급식 기관에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서울시 먹거리 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중소규모의 농민들이 보다 생태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먹거리를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들에게는 정당한 소득을, 생태계에는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7년 5월부터 강동구-완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2017년 11월 도봉구-원주시, 강북구-부여군, 노원구-홍성군, 금천구-나주시, 성북구-담양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자, 종사자, 수요자, 연구자, 시민 모두가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가 가지는 가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급식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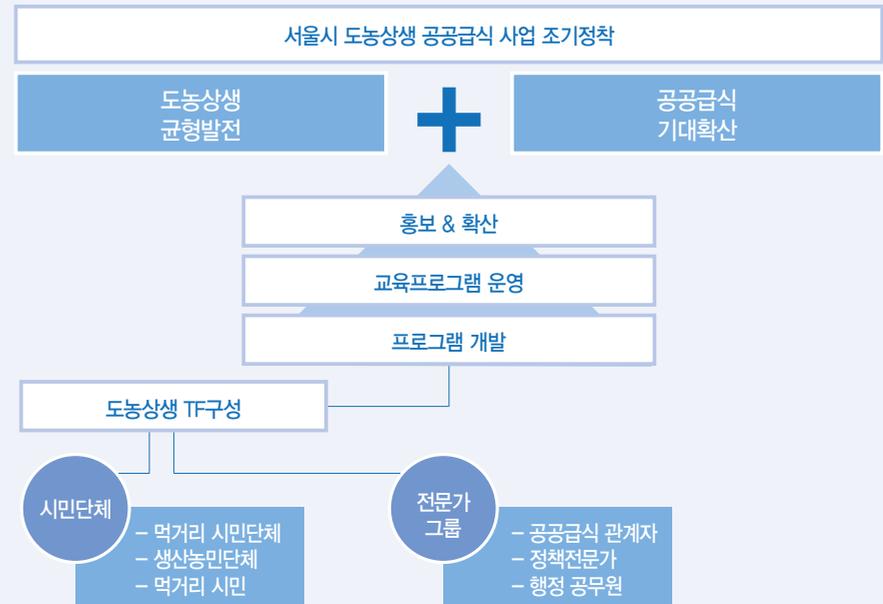
이를 위해 2017년 관계 기관, 시민사회, 먹거리 연구자, 지역 생산자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급식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기획하고 세부 프로그램 모델 및 강의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도농상생 먹거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이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먹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길, 만듭니다

도농상생 먹거리교육 가이드라인과 세부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는 우선 체계적인 공공급식 먹거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먹거리 전문가,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 및 정책전문가, 친환경 생산 농민단체, 공공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행정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 TF팀'을 2017년 5월 조직하여 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도농상생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과 관련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도농상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기존 먹거리 교육 활동가 심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이후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도 확보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먹거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함께, 세웁니다

최적의 효과 고려한 단계별 프로세스 진행

도농상생 공공급식 먹거리 교육은 단계별로 대상을 고려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진행함으로써 교육 내용에 차별성을 뒤 효과를 높였으며, 공공급식 관계자인 어린이집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공급식 수요자인 어린이집 아동 및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그리고 생산농민 및 먹거리 교육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인 먹거리활동가 양성 교육은 먹거리 시민 입문 교육에 해당하는 '먹거리 마중물과정'과 생산자 교육에 해당하는 '청년농부교실'이 있습니다. 먹거리 마중물과정에서는 도농상생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안전한 밥상과 기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청년농부교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필요성과 도농상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전문교사의 기초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인 전문가 심화교육은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전문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여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중물과정 수료자 및 청년농부교실 수료자,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단계인 수요자 방문 먹거리 맞춤 교육은 '찾아가는 먹거리 교실'로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자치구 시민을 대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모델의 이해, 안전먹거리 실천에 따른 긍정적 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교육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협치, 해냅니다

공감대 형성으로 널리 확산시켜 나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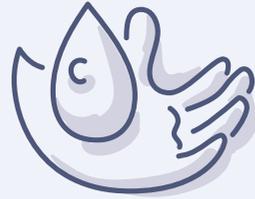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널리 알려 서울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6개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의 관계자가 모여 협약을 맺고 소통하는 자리인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을 2017년 12월 4일~5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6개 자치구 및 산지 기초지자체 관계자 약 243명이 모여,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협약을 맺었으며, 소비자(공공급식시설)와 생산자(농민)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내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유관기관(단체) 간 네트워킹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5개 산지 지자체장들이 함께한 조화와 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빔밥에는 부여에서 기른 시금치와 표고버섯, 완주의 참기름과 유정란, 홍성 및 원주의 쌀과 한우 등을 사용했으며, 3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은 퍼포먼스 직후 인근의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도시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농촌 중소가축농과의 상생을 통해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2017년 개발·적용된 도농상생 먹거리 교육 역시 공공기관, 시민사회, 연구자들이 함께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효성이 높았습니다. 향후 참가자 설문조사 및 연구개발팀·운영진·자문단 평가회의 등의 체계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먹거리활동가 양성 및 관련 일반 시민 교육에 널리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아리수, 몇 점인지 아시나요?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 홈페이지 : <http://e-arisu.seoul.go.kr/sudocitizen/citizen>
- 카페 : 2016년 릴레이 서약 <http://cafe.gcn.or.kr/arisu>
2017년 활동 <http://cafe.gcn.or.kr/sns>
- 문의(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02-3146-1219

가능성, 키웁니다

서울 수돗물, 시민이 평가하고 관리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의 품질을 직접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수돗물시민평가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상수도 주요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상수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의 수돗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민관협치 사업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은 2012년 처음 구성된 이래, 매년 다양한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 활동을 펼쳐 왔으며, 2016년 250명에 이어 2017년에는 253명의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시민평가단 활동을 통해 그간 평가단원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진 것에 주목하여 평가단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시민평가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1년 간 상수도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서울시는 이에 따른 활동비 지급, 우수 활동자 시장표창, 아리수 품질확인제 요원 응모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새길, 만듭니다

아리수를 지키고 알리는 253명의 수돗물 파수꾼

2017년 서울시 수돗물시민평가단은 중부사업소 26명, 서부사업소 27명, 동부사업소 33명, 북부사업소 33명, 강서사업소 36명, 남부사업소 41명, 강남사업소 26명, 강동사업소 31명 등 총 253명이 모집되었으며, 아리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을 블로그에 포스팅할 파워블로거 10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45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함께 활동했습니다. 2017년 4월 4

일에 시민평가단 위촉장 수여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정수센터 견학을 통해 아리수 정수과정에 대해 교육하고, PC를 이용한 보고 방법과 SNS 활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대학생 서포터즈는 봉사활동 경력이 있고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으로 선발했으며, 58명 지원자 중 45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5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기초 교육을 통해 아리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리수 음용 릴레이 서약을 진행하여 1,574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UCC 영상(4분)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였으며, 홍대건교 싶은거리에서 대학생 대상 현장 캠페인을 벌여 인근 대학생들에게 아리수로 만든 아메리카노 시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리수 홍보를 위해 선발된 10명의 파워블로거 역시 각종 아리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수돗물시민평가단의 활동 내용도 블로그에 올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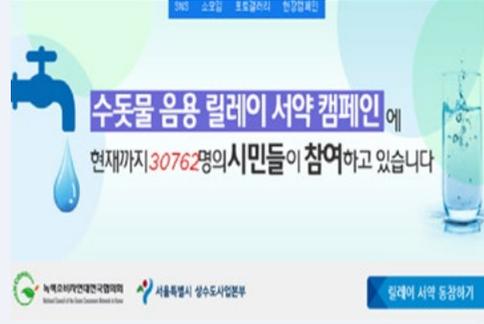
◆수돗물시민평가단 조직 구성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총
인원수	26	27	33	33	36	41	26	31	253명

**협치,
해냅니다**

내 고장이라 점검도, 홍보도, 체험도 최선을 다해!

2017년 선발된 253명의 수도물시민평가단원들은 4월~5월에 월평균 30명~50명의 시민을 찾아가 수도물 음용 서약을 받는 '아리수 음용 릴레이 서약'을 진행하여 4월에는 10,017명, 5월에는 9,003명이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서약은 수도물 서약 카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인증사진을 릴레이 서약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단원들은 서울시 전체 공원 음수대 1,333대 중 941대를 모니터링하여(71%) 청결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SNS에 올려 일반 시민들에게 아리수의 안전성을 홍보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수도사업소 아리수 토탈서비스를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총 312건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시민평가단원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여 지역 축제, 장터 등에 참여하는 현장 캠페인 활동을 총 142회 진행하여 61,47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SNS에 올려 널리 알렸습니다. 또 아리수 소그룹 모임을 조직하여 <안전한 우리집 수도물 가이드(교재)>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과 평가단원 3명과 일반 시민 3명이 짝을 이뤄 아리수를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리수 교실을 열어 아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교육하고, 아리수를 사용한 음식 만들기, 차 마시기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수도물시민평가단의 최종 보고회를 가져 사업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2018년 활동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수도물시민평가단 조직 구성

구 분	'16. 4월	'16. 5월	'16. 6월	'16. 7월	'16. 8월	'17. 4월	'17. 5월
월별인원	1,318	3,375	3,162	2,877	1,010	10,017	9,003
누적인원	1,318	4,693	7,855	10,732	11,742	21,759	30,762



시민 스스로 위기대응능력 길러 '안전사회' 만든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홈페이지 : <http://fire.seoul.go.kr/citizen>
- 문의(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02-3706-1741

가능성, 키입니다

시민 초기대응 교육 강화로 재난 확산 막는다

서울시는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함은 물론 남을 도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자신 및 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초기대응에 따라 재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관(官)이 대응하기 전 시민의 자율 대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에 재난에 처했을 때 관의 대응만으로 피해 주민의 구조·피난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 자신이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협업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은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 중심(동·반장, 대학, 봉사단체 및 직장 단위)으로 주민자율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재난 시에 자율적으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민 스스로가 참여·운영하는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새길, 만듭니다

매년 3만 명씩 양성, 2018년 11월 누적 98,801명 달성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2018년 11월 30일 기준, 98,801명이 양성되었습니다. 2015년 1만명 양성 후 2016년부터는 매년 3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98,801명을 양성함으로써 전체 10만명 달성 목표 대비 98.8%를 달성했습니다.

교육은 총 12시간으로 기본교육 8시간, 심화교육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교육 8시간은 위기상황판단능력 교육 2시간,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교육 3시간, CPR(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등 응급처치 교육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시민안전파수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화교육은 장소별, 대상별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시행함으로써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협치를 통해 시민·내부전문강사(108명), 자문단(20명), 시민보조강사(133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강사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강사교육과정은 53명이 참여, 상황판단 및 군중심리, 안전문화, 피난 특성, 강의 스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최종 강사자격평가를 통해 시민안전파수꾼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후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안컨설팅, 강사 키움 교육 등을 2018년 한 해 동안 지속 운영함으로써 시민강사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꾀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표준교안을 개발하였고, 그 안에는 공통지침과 재난상황 별 자세한 교육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시민안전파수꾼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파수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교육 안내 및 가입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파수꾼 DB를 통해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거주지 및 교육이수 현황,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발생 시에 근거리 시민안전파수꾼에게 재난경보를 발송해 자발적으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민안전파수꾼 4개년 10만명 연차적 양성

(단위 : 명)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1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목표	100,000	10,000	30,000	30,000	30,000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인원	98,801	10,380	30,189	30,149	28,083

협치,
해합니다

지역·대학·단체 고르게 양성, 자율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시민안전파수꾼은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위기상황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개년 목표 양성 인원인 1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한층 안전한 서울시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안전파수꾼은 2015년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 받은 서울 정책으로 서울시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한 이래, 2017년에는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5대 혁신정책에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정책박람회에도 참가하여 그 취지와 기능을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안전파수꾼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는가 하면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주민자율 위기대응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대학교수, 심리학 박사, 생존21 대표 등 10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재난 초기대응 시민대토론회와 조례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13일 공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6년도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에 시민안전파수꾼 관련 안전 교양과목을 신설하여 188명이 수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경희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추가로 안전 교양과목을 신설하여 총 1,163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5개 대학교 정규과정을 계속 운영하여 안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 대학, 사회단체,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민안전파수꾼을 고르게 양성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구 및 공기업, 소방서 등 7개소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끊임없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각종 재난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재난초기대응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의 날 행사를 지속 개최하였으며 세대별 방한 안전교육·점검, 입주민 재난초기대처 교육 등을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생활주변 감시로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든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운영



문의(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02-2133-8043

가능성, 키웁니다

지역 실정 잘 아는 주민 스스로 안전지킴이 역할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동네 안전을 감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각 지대 등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찾는 데 있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로 안전감시단을 구성해 생활밀착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징후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형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서울 구현



새길, 만듭니다

2017년 3기 1,024명 위촉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사업은 2015년 4월 853명을 1기 우리동네안전감시단으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에 2기로 868명을, 2017년 6월에 3기로 1,024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감시단원은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거나 관련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요 활동은 주변생활 속 안전위해 요인 및 취약지대 발굴 및 제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활동 전개, 사회적 이슈나 계절-시기별 안전위해 요소 점검, 재난 관련 훈련 참여 및 안전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 담당 등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였을 때는 안전신문고,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안전점검의 날인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시행을 원칙으로 2~4명이 한 조를 이뤄 하루 4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공사장, 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안전사각 지대 등 생활주변이며, 재난대응 훈련 및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인원 : 총 1,003명

('18. 1월 기준)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종각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1,003	42	35	40	36	37	41	34	51	29	34	50	37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0	39	40	43	29	26	42	44	48	45	51	58	42



협치,
해냅니다

동작안전감시단 서울시 안전상 수상, 모범 재난안전거버넌스 제시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은 2015년 도입 이래, 조기 정착하여 시행 후 매년 안전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조치가 가능한 곳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소요 시간이 길거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동작구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이 서울시 안전상을 수상하여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작구 안전감시단은 상도4동 산65번지 내 석면 오염지역과 사당동 침수지대 등 안전취약 지역에서 정기 순찰 및 사고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최근 3년간 무안전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8년도에 안전신고 처리결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3의 유관민간단체를 통해 안전신고 후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감시단 워크숍, 순회 교육 등을 시행하여 운영 노하우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운영 성과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신고건수	조치건수	신고건수	조치건수	신고건수	조치건수
계	2,616	2,304	7,285	6,629	16,447	15,969
생활안전	1,398	1,121	4,481	3,939	10,904	10,518
교통안전	285	270	1,252	1,208	3,522	3,473
재난재해	145	135	692	660	369	366
기 타	788	778	860	822	1,652	1,612



협치로, 푸르른 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협치로, 푸르른 서울

- 5-1. 시민과 함께 가꾸는 한강공원
- 5-2.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 5-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5-4. 원전하나줄이기
- 5-5.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 5-6. 시민자율환경감시단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만든 멋진 하모니! 시민과 함께 가꾸는 한강공원



- 홈페이지 : <http://hangang.seoul.go.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angang.seoul>
- 문의(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 02-3780-0715

가능성, 키웁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레저·문화·예술 즐기는 서울시민들

한강은 도시의 삶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각종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4년 잠실·광나루·독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양화·난지·망원·강서 등 11개의 한강공원으로 개편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강공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은 물론이고 수상스키장, 요트장, 보트장, 캠핑장 등 레저시설, 한강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자전거도로 등 온갖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시민들의 환경·문화·예술적 욕구에 맞춰 새롭게 공간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일찍이 매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혹은 단체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한 한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한강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치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개인 130명 · 단체 224팀이 꾸린 8개 테마 봉사활동

2017년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위해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워 활동을 지속해나갈 '개인 자원봉사자' 130명과 일상적인 공원 관리 또는 자원봉사자 스스로 기획한 활동을 직접 운영할 자원봉사자 단체 224팀을 8개 테마로 모집하여 운영했습니다. 개인 자원봉사자로는 학생, 기업 등 자원봉사 단체를 인솔하는 '한강도담이' 70명,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

해 자전거 안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자전거 안전지킴이' 60명이 활동했습니다. 단체 자원봉사자로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환경정화를 전담하는 학교, 기업 등 '한강지킴이' 25팀과 환경·문화·예술 등 주제에 따라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기획봉사단체' 19팀, 한강 곳곳에서 거리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한강거리예술가' 160팀이 배치되어 활동했으며, 4월~11월 한강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 '수질수생태모니터링 동아리' 20개팀이 활동했습니다.



◆2017년 한강공원 8개 테마별 자원봉사활동

구분	분야	활동내용	비고	
개인	한강도담이	•한강지킴이 및 자원봉사 단체 인솔 •공원별 시민체험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70명	
	자전거 안전지킴이	•권역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및 시설 모니터링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계도 등	60명	
단체	한강지킴이	•각 공원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환경정화, 일손돕기 등 일상적인 공원관리 활동	25팀 (기업, 학교, 단체)	
	기획봉사	환경	•깨끗한 한강 만들기를 주제로 봉사활동 기획·운영 예) 쓰레기치우기 캠페인, 다문화가정과 환경정화 등	19팀
		문화	•온가족 한강 누리기를 주제로 봉사활동 기획·운영 예) 다양한 놀이문화 체험, 소외계층 한강나들이 등	
		예술	•누구나 한강 가꾸기를 주제로 봉사활동 기획·운영 예) 아트테라피, 벽화, 캘리그래피 등	
	한강거리예술가	•노래, 악기연주, 미술, 이색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나눔 활동	160팀	
수질수생태모니터링	•4월~11월 월2회 한강 수질측정 •한강 서식 어종조사 등 수생태 모니터링	20팀		

함께,
세웁니다

더욱 풍요로운 한강공원을 만든 시민들의 노력

서울시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한강을 보전 및 관리하고 그 위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7 한강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총 2,837명이 참여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42회의 강좌가 진행되었고, 토론회 3회, 포럼 1회가 개최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강시민강좌는 '한강의 현재와 지속 가능한 미래상',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한강보존', '한강과 시민, 그리고 협치' 등 다양한 주제의 이론 강의 20회, 중랑물재생센터와 수도박물관 등에서 진행된 현장 강의 7회, 지역 탐방 3회, 해외 초청 강의 2회, 열린 강의 2회,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8회 등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강시민대학 및 한강포럼의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생태·환경·역사·문화) 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알찬 한강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017년 7월에는 자원봉사자 280명이 기획·추진하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인 '몽땅, 플레이하다'가 독섬한강 공원에서 진행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등 분야별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환경실천 캠페인에 재미 요소를 더한 다트게임, 자투리 천을 활용한 팔찌 만들기,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쇼핑백 꾸미기, 관현악 연주 및 댄스공연, 캘리그래피, 페이스 페인팅 등으로 다채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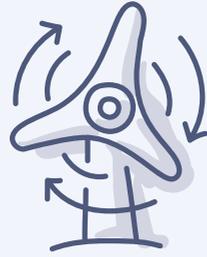
협치,
해냅니다

연 3만 명 목표로 다양한 참여 기회 마련

서울시는 환경 정화, 녹지대 관리, 모니터링, 환경·문화·예술 등 분야별 기획봉사 등 다양한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을 연 3만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시민참여 한강공원 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힘으로 운영되는 시민의 공원이며, 시민의 손으로 가꾸고 보존할 때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시민의 성장, 협치로 돕는다!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 문의(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02-2133-3662

가능성,
키웁니다

지역에너지 지키는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지금까지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전력 자립률을 높여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년간 350만여 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하여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으며, 정책 홍보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경험과 활동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만들 때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서울시는 민관 협치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시민 생활공간 속에서 더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사람-기술-정책이 원활히 연결되는 지역에너지 플랫폼 구축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활동가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을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지역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를 위한 주요사업 내용



새길,
만듭니다

에너지전문가 양성하는 다양한 시도들

서울시는 자치구 에너지네트워크 확대·강화를 위해 우선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 및 자치구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을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및 그룹인터뷰 등을 통해 참여 단계별·형태별·유형별 조사가 이뤄져 그 결과물을 데이터화하여 에너지리더 DB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얻은 활동 사례를 토대로 단계별 성장 비전 및 지역 실무 교육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에너지시민활동가들의 성장 의지가 높고, 교육 및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컸으며, 특히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교육(에너지 강사), 햇빛발전협동조합, 주거재생 집수리/단열 등 4개 분야로 분석되어 분야당 25~30명의 대상을 모집·선발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이해, 에너지 진단, 에너지 시공, 에너지 상담 등 신규 에너지 활동가로 활약하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8~10월에 진행하였으며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이 각 자치구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고, 지역 내 현안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지역에너지센터 기반 조성 사업을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그 중 역량이 갖춰진 자치구를 발굴해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사업 내용,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자치구 내 에너지센터가 상설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모 결과, 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향후 지역에너지센터 건립 및 발전에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내용

분야	신청자격	강의내용
에너지 강사	-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시민활동가 경험 3년 이상인 분 - 에너지기후변화수업 진행 경험 5회 이상인 분 중에서 에너지강사로 성장하고 싶은 분	- 사전모임 - 교사용, 교육과 학습 - 교육공학과 교수학습방법 - 교육사례 분석과 평가 - 실습과 평가, 프로젝트 발표
에너지 자립마을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주민	- 에너지자립마을넷 구성에 대한 논의 - 오리엔테이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을 찾아보기 - 우리의 비전과 민간역량 키우기 - 에너지자립마을넷 추진에 대한 논의 - 사업평가와 향후 과제 등
에너지 협동조합	- 에너지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추진 중인 조합 포함) - 에너지협동조합 구직 희망자	- 태양광발전소 건립 - 태양광발전 설비와 기술 - 에너지 정책 전망, 시장 흐름과 전망 - 에너지협동조합 회계, 중장기 방향 - 에너지 정책 대안 워크숍 - 협동조합 기본법 및 세제 개선 워크숍
주거재생/ 집수리, 단열	- 에너지 관점의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거주자 및 건축분야 종사자로 에너지 관점의 건축기술에 관심 있는 자 - 서울 에너지 자립마을 거주자 중 건축기술을 습득하여 마을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건축 분야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택 리모델링 기획과 조사법 - 공구와 사용법 - 단열1-(벽체/지붕단열) - 단열2-창호 기초단열 - 전기 - 타일



두 차례 포럼으로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가능성 찾다

서울시는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2017년 7월과 11월 두 차례 개최하여 지금까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과 민관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7월 27일 시민청에서 열린 1차 포럼은 '에너지시민활동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관심을 보인 시민과 서울시 및 자치구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에너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신근정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배출된 에너지시민활동가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특징과 역량을 갖추고 어떤 욕구를 형성하고 있는지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실현을 위한 협치 파트너이자 에너지 시민활동가의 능동적 참여 공간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 에너지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11월 24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차 포럼은 '에너지시민이 만드는 지역기반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2018년 지역 에너지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차 포럼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30') 진행순서 및 참석자 안내	
14:00~14:30	(30') 에너지시민활동가 현황 및 역량조사 분석 연구 결과 발표	신근정 위원
14:30~15:00	(30')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드는 법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추진단장
15:00~15:40	(40') 1부 토론 -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4개 분야별 프로그램 발표 (햇빛발전, 에너지교육, 에너지자립마을, 주거재생 집수리, 단열)	김원국 팀장 조미성 선임연구원 김소영 대표 함승호 대표
15:40~15:50	(10') 휴식	
15:50~16:30	(40') 2부 토론 - 자치구별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사업 발표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16:30~17:00	(30') 전체 토론	연사 및 참석자

◆2차 포럼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14:00~14:05 (5')	인사말씀	
14:05~14:15 (10')	발제1 :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17 협치 사업의 의의	김연지 과장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4:15~14:55 (40')	발제2 : 시민들이 만들어낸 에너지네트워크 실험 진행과 과제 - 에너지강사 : 조미성 선임연구원(모두를위한환경연구소) - 에너지자립마을 : 김소영 대표(마을닷살림협동조합) - 에너지협동조합 : 김원국 팀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주거재생 : 함승호 대표(적정기술공방)	김원국 팀장 조미성 선임연구원 김소영 대표 함승호 대표
14:55~15:15 (20')	발제3 : 에너지네트워크 1년 성과와 2018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방안	신근정 팀장 (사)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15:15~15:30 (15')	휴식	
15:30~16:30 (60')	지정토론 - 정선애 센터장(서울시 NPO지원센터) - 윤전우 사무국장(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이진우 과장(서울에너지공사 시민협력부) - 안승현 팀장(강동구 탄소경영팀) - 이승란 교육팀장(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 한영란 대표(노량진2동 에너지자립마을)	발제자 및 토론자
16:30~17:00 (30')	종합토론 및 마무리	



민관 협치로 지역 기반 실천 모델 찾아

2017년 서울시는 지역밀착형 에너지네트워크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리더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분야별로 진행하여 활동가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과 결합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실천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자치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너지센터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에도 자치구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에너지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등 에너지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다 발전된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특별시 서울, 시민이 함께 만들어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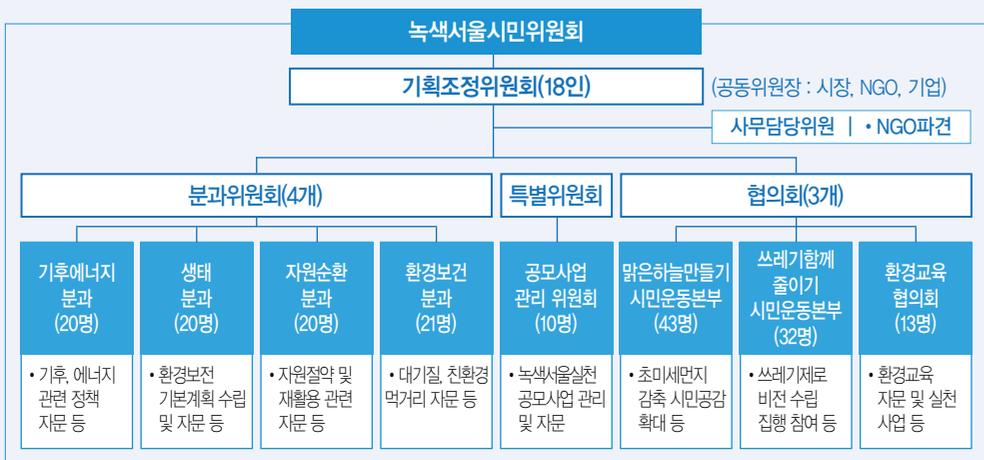


- 홈페이지 : hangang.seoul.go.kr
- 문의(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02-3780-0810

가능성, 키웁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모범적인 거버넌스

1995년 11월 첫걸음을 내딛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민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그간 녹색위는 공원녹지수질·대기질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수립 등에 참여하는 등 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구성된 11기 위원회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안, 그리고 시민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더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더 건강하게

2017년 발족된 11기 위원은 시민단체 32명, 지역기반단체 및 일반시민 9명, 학계 등 전문가 24명, 언론인 및 법조인 10명, 기업인 14명, 시의원 5명 등 총 9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난 기수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특히 지난 기수에 비해 기업 관계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점은 건강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총 96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연인원 1,012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총 584개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치, 해냅니다

협치로 그린(green) 더 깨끗한 서울

▶ 서울의 약속 이행 점검 모니터링 지속 추진

먼저 11기 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의 비전이자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2015년 작성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에 대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5개 분야 164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적절한 지표들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환경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녹색위 대표사업 추진

환경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은 2017년도 녹색위의 대표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와 협력하여 각 분과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논의하였으며, 제안된 15개 사업 중 '교통량과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및 기여도 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물에너지 플랫폼 구성', '도시공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3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의 연계 강화 노력

녹색위는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 정기회의뿐 아니라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단장들과의 간담회가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치구 단위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

2017년도에는 각 분과별로 협치 의제 사업들을 전개하여 서울시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 위원회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의 우수 모델로 대표되는 녹색위 사례를 다양한 자리에서 소개하였고, 서울협치협의회와 함께 '환경 분야 협치 의제 포럼(2017.12.5.)'을 기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동북아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추진

녹색위는 동북아 기후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국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동북아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중국 베이징시와 도쿄도 환경국 관계자들,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방문하여 동북아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 광화문 미세먼지 대토론회 공동 추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17년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천 여 명과 함께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토론회 결과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으로 수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여 대책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 녹색위 20년 기념 행사 추진

2017년 11월 24일에는 녹색위 20년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 환경 거버넌스 조직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이 모여 녹색위의 20년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0년 녹색위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연혁별 주요활동

위원회	주요 활동
1기 ('95.11.~'97.11.)	- 서울의제 21 확정 및 선포(1인당 에너지소비량 30% 절감 등) -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 현장중심 환경보전활동(5,378개 업소 감시) - 서울환경헌장 선포
2기 ('98. 2.~'00. 2.)	- 서울의제 21 시민실천 자치구 사업 추진 - 민선 2기 서울의 환경보전방향 제안(지속가능개발위 설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 한강 상수원 수질오염 정화활동,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4,526대)
3기 ('00. 3.~'02. 3.)	-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문 - 자치구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구성(3,800명) - 난지도 골프장 건설 반대활동(녹색위 위원 31명 탈퇴선언)
4기 ('02. 3.~'04. 3.)	-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 하천살리기 합동 캠페인, 지구의 날 행사 등 개최
5기 ('04. 4.~'06. 4.)	- '서울의제 21'을 '서울행동 21'로 개편, 실천가능 강조 - 난지도울공원 시민이용 선포식 개최, 송파신도시 건설 철회 의견서 제출
6기 ('06. 4.~'08. 9.)	- 서울기후행동 구성, CO2 닥터 양성 등 에너지컨설턴트 기반 마련 -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검토의견서(백지화) 제출
7기 ('08. 9.~'10. 9.)	- 생태경관보전지역 신규지정 심의 - 자치구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센터 구축 등)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운영
8기 ('10. 9.~'12. 9.)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대토론회(실행방안 논의) - 쿨비즈 운동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 참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9기 ('12.11.~'14.10.)	- 서울시 자원순환지표 개발,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제작·배포 -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추진(매월 22일 불끄기 캠페인, 지구촌 전등끄기 등) - 시원차림 패션쇼
10기 ('15. 1.~'16.1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마련 및 실행계획 모니터링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구성 - 서울시 환경정책 건의집 작성(6개 분야 36개 정책)

2단계 돌입,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만든다! 원전하나줄이기



- 홈페이지 : energy.seoul.go.kr
- 문의(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02-2133-3524

가능성, 키웁니다

103개 사업 추진하며, 2단계 순항 중

서울시는 2012년 4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시민들의 참여로 근원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양인 200만 TOE¹⁾를 대체하는 서울 지역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신규 원전의 증설을 억제하고 자원 절약을 극대화하여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초 1단계 목표 달성에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4년 6월에 목표 기한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원전 1기에 해당하는 200만 TOE 대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단계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는 2020년까지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양인 400만 TOE에 도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과 전력 자립률 20%의 목표가 같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를 지나 2단계로 순탄하게 103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서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으로 2017년까지 198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는 47천 여 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생겼습니다. 서울의 75개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효율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고 선도하는 에너지수호천사단이 매년 2만 5천여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촉촉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각계각층 시민 참여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은 정책 결정자나 몇몇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희망정책자문단, 시민단체 등이 16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은 2012년 2월 21일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워크숍'과 4월 16일 '시민대토론회'에서 다듬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대토론회에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주제별 토론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기업·학계·문화계·종교계·교육계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거버넌스 조직에 참여했으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탄생된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과 '에너지시민협력반(현 에너지시민협력과)'을 신설하였고, 두 조직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되었습니다.



1)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화산톤, 여러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

1단계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은 10대 핵심 사업이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①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 ②수소연료전지 활용 '주요 시설 에너지 자립' 확보, ③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④스마트 조명 및 LED 보급 확대, ⑤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공간을 위한 컴팩트시티 구축, ⑥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등 설계 기준 강화, ⑦카 셰어링 활성화, ⑧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⑨시민주도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 ⑩서울시 '에너지재단' 설치·운영입니다.

이외에도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에는 산·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6대 분야, 21개 정책 과제, 100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대 분야는 ①산·재생에너지 확대, ②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③친환경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④에너지산업 일자리 창출, ⑤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공간 구조로 개편, ⑥시민 주도의 에너지 저소비 실천문화 창출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출발을 민간이 함께 했기 때문이며, 또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마을, 자치구라는 거버넌스 구조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하나줄이기는 서울시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생활 속 에너지절약이 견인차 역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 산·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까지 200만 TOE 대체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져 2014년 6월에 204만 TOE가 달성되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효율화, 절약의 3개 부문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 분야로 시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분야는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가 추진된 2년여 간 당초 목표를 두 배 가량 웃돌았는데, 당초 목표가 48만 TOE

였으나 1단계가 끝날 무렵 91만 TOE로 190%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되어 2012년부터 본격화된 에코마일리지는 2017년까지 198만 명의 개인·단체 회원이 함께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였고,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에너지 사용 진단을 해주는 홈에너지클리닉,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학생들로 구성된 에너지수호천사단, 상업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이끄는 '에너지 아끼는 착한가게' 등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의 실천 사례를 전파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전령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햇빛펀드,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슈퍼마켓, 에너지자립마을 등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선도해왔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2014년 6월까지 1단계를 조기에 완료한 이후, 2단계로 접어들어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400만 TOE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10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분야별 목표와 달성 성과

(단위 : 천TOE)

구 분	목 표	달성성과			
		계	'12년	'13년	'14년 6월
합 계	2,000	2,040	331	921	788
에너지 생산	410	260	35	78	147
에너지 효율화	1,110	869	145	328	396
에너지 절약	480	911	151	515	245

협치, 해냅니다

에너지 '자립·나눔·참여' 추구하며, 2020년까지 400만 TOE 대체 달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2014년 6월 204만 TOE를 달성한 이후에도 2017년까지 266만 TOE를 추가로 생산·절감하여 총 470만 TOE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원전하나줄이기가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매년 1,063만 톤CO₂eq²⁾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1,611백만 그루 조성한 효과이자 소형 승용자동차(대당 1,572톤CO₂/년, 대) 521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됩니다.

2) 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 : 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러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서울을 위한 에너지정책에 국한시키지 않고 타 지자체와 국가, 국제사회로 이어가면서 에너지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타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전하나줄이기에 참여했던 시민과 에너지단체 등이 모여 체험담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행정적 절차와 재정조달 방안, 장애요인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참고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지역의 에너지정책에 힘을 보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과제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추진을 통하여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과 에너지생산-절약 400만 TOE, 온실가스 1천만 톤CO2eq 감축을 목표로 세부추진 과제를 수행해 갈 것이며, 2단계의 핵심 가치인 '자립', '나눔', '참여'를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안전한 도시, 시민이 아껴 쓴 에너지를 이웃과 나누고 그로 인한 혜택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도시, 에너지정책 수립에서 실천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민이 뿌린 에너지거버넌스 씨앗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문의(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02-2133-3853

가능성, 키웁니다

도시 물순환만 잘돼도 가뭄·침수·열섬 걱정 없다

봄비는 푸르른 새싹과 꽃을 틔우고 미세먼지와 황사도 씻어주며, 여름비는 더위를 식혀 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너무 과한 집중 호우는 수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빗물을 활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이 이뤄지도록 '빗물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물순환 회복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빗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 속 함께하는 빗물마을 조성'은 빗물 이용 시설(빗물저류조, 빗물저금통 등)을 설치하여 하수도에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텃밭에 물을 주거나 마당을 청소할 때 사용하고, 빗물 침투 시설(투수블록, 레인가든 등)을 설치해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하수도로 배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도시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빌딩과 아파트 등으로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열섬현상은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열섬현상, 침수, 수질오염 등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부터 빗물마을 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6개소를 완료한 이래, 매년 그 수를 늘려감으로써 이상적인 물순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주민참여형 전환으로 주인의식 높다

기존에도 빗물 관리 시설 확충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주민참여를 통해 민관 협치로 빗물 관리 시설을 확충·관리하는 빗물마을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단위 시설을 마을 단위로 집적함으로써 통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표수 침투량 및 하수도 배출 저감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 관리 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빗물마을을 선정하고 있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빗물의 침투·이용이 용이한 물리적 여건이 적합한 지역, 참여도, 관심도 등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침수 지역 등 과 같이 빗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비 전	선정 절차	주요업무
전년도 11월	빗물마을 추진 계획 수립	○ 빗물마을 조성 공모 계획 공고
전년도 12월	설명회 및 공모 공고	○ 설명회 개최(25개 자치구) ○ 조성사업 공모 공고 - 신청: 구청장 및 주민
금년도 1월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마감 ○ 신청서 및 신청서류 검토
금년도 2월~3월	선정 위원회 심사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 심사위원 평가
금년도 3월	사업대상지 발표	○ 사업대상지 발표
금년도 4월~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빗물마을 기본 구성 ○ 주민워크숍 추진 ○ 실시설계 시행
금년도 8월~12월	공사 시행	○ 자치구 공사 착공 및 준공

신청은 공모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빗물마을 선정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 및 효과,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첫 해인 2016년에는 강북구 수유동, 은평구 불광2동, 성북구 장위동 3개소가 선정되어 완료되었으며, 2017년에는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제기동, 양천구 신월1동 3개소가 선정되어 완료되었습니다.



▲ 빗물마을 조성 전



▲ 빗물마을 조성 후

함께,
세웁니다

설계부터 시행까지 민·관협치로 참여형 빗물마을 조성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조성 사업은 민관 협치로 계획에서 실제 시행까지 충분한 의견을 나누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성 완료된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제기동, 양천구 신월1동 빗물마을 역시 조성사업 공모 공고 이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치구에 홍보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마을별로 2회씩 총 6회의 주민워크숍을 전문가, 설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짐으로써 빗물마을 조성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도출된 사업구상(안)을 구체화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화된 빗물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구별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에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갔으며, 마을의 현장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주민참여형 빗물마을 조성을 이루어 냈습니다.

협치,
해냅니다

2018년 10개 마을 조성 후, 빗물마을 확대 종합계획 수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빗물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총 10개의 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2017년까지 조성 완료된 6개소에서는 빗물마을의 효과를 장기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빗물 활용의 필요성과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참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었고, 설계에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는 성동구 송정동, 동대문구 전농동, 강북구 우이동, 금천구 독산동 4곳의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선정위원회에는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마을별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에는 물순환 및 LID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종 물순환 시설 설치 매뉴얼 등의 지침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시범사업 10개 마을조성 후에도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빗물마을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 공무원, 활동가들에게 빗물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 분야로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6~2017년 빗물마을 6개소 조성

자치구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6개소	146,800m ²	
강북구	수유동 516 일대	16,400m ²	완료
은평구	불광2동 445 일대	17,200m ²	완료
성북구	장위동 219-233 일대	37,000m ²	완료
금천구	시흥동 219 일대	32,200m ²	완료
동대문구	제기동 67 일대	24,000m ²	완료
양천구	신월1동 240 일대	20,000m ²	완료

◆2018 빗물마을 4개소 조성 중

자치구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4개소	152,600m ²	
성동구	송정동 66	36,100m ²	추진 중
동대문구	전농동 46	43,500m ²	추진 중
강북구	우이동 180	17,000m ²	추진 중
금천구	독산동 1100	56,000m ²	추진 중

1) LID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기법

우리 동네 환경은 내가 지킨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문의(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02-2133-3850

가능성, 키웁니다

스스로 나서 지키는 주민참여 감시단

환경을 지키는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나서 감시하고 점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경우에 따라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가져야 하고, 점검 및 순찰에도 시민이 참여하여야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점검 및 환경 순찰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점검이 수행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관한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2004년 처음 발족되어 1기 40명이 1년간 활동한 이래,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구성되었고 2017년 8기가 모집되어 2019년 8월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 및 인원

구분	임기	기간	인원
1기(최초)	1년	2004.08.01. ~ 2005.07.31.	총 40명 민간단체추천 15명 / 자치구 추천 25명
2기	2년	2005.08.01. ~ 2007.07.31.	총 40명 민간단체추천 11명 / 자치구 추천 29명
3기	2년	2007.08.01. ~ 2009.07.31.	총 40명 민간단체추천 15명 / 자치구 추천 25명
4기	2년	2009.09.01. ~ 2011.08.31.	총 47명 22개 자치구 2명 / 3개 자치구 1명
5기	2년	2011.09.01. ~ 2013.08.31.	총 50명 자치구별 2명
6기	2년	2013.09.01. ~ 2015.08.31.	총 50명 자치구별 2명
7기	2년	2015.09.01. ~ 2017.08.31.	총 52명 자치구별 2명 / 서울시 추천 2명
8기(현재)	2년	2017.09.01. ~ 2019.08.31.	총 52명 자치구별 2명 / 서울시 추천 2명

새길, 만듭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추천, 총 52명으로 구성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환경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25개 자치구에서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2명을 추천하여 50명을 위촉하고, 서울시에서 2명을 추가로 추천하여 5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관 상호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만들어진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 환경순찰 및 신고-제보 활동 전개, 공공 환경시설 점검, 분뇨 수집운반 차량 청결도 점검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활동한 제7기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 배출 업소 점검을 총 263회 하여 99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환경순찰은 1,090회로 2,072명(누적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공환경시설 점검과 분뇨차량 청결도 점검은 각각 14회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자치구

구분	합동 지도 점검	환경 순찰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구 실시 - 광진, 중랑, 강북, 도봉, 구로, 금천, 영등포, 강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구 실시 - 종로,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구 실시 -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구 실시 - 용산, 성동, 강북, 도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협치,
해냅니다

투철한 환경보호의식 속에 제8기 감시단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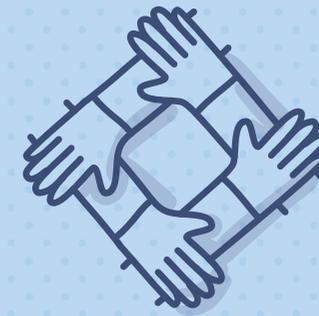
2017년 9월 새롭게 위촉된 제8기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환경보호의식이 투철하고, 평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8월까지 감시활동을 담당합니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장과 감시원증이 교부되며, 인문학 강의를 통해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감시단 활동, 배출업소 점검방법 등을 교육 받습니다.

제8기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적정 관리 상태 점검 △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환경 시설 파손 및 악취 발생 여부 점검 △분뇨 수집·운반 차량 청결 상태 점검 △하천 오염물질 무단방류 감시 등 서울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협조 아래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합니다.



협치로, 함께 크는 서울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협치로, 함께 크는 서울

- 6-1.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젠더거버넌스
- 6-2.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6-3. 민주주의 서울
- 6-4. 모두의학교 개관

시민과 함께 성평등 정책 만들다!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젠더거버넌스



○ 문의(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02-2133-5057

가능성, 키웁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서울 시정을 바라보다

서울시민 누구도 성에 따라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인지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차별 개선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성주류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들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또 시장 각 분야별로 성평등 정책 마련 및 반영 여부는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공무원·전문가·시민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성주류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가·전문가·공무원·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운영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70개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YWCA, 풀뿌리여성 센터 바람 등과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핵심 3대 분야(안전·일자리·복지)를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전체 사업 총괄 거버넌스와 지역별 거버넌스로 이원 운영하여 108개 사업에 대해 효율성 있게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에 보다 적합한 정책을 모색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정책의 성인지성 모니터링 지표 및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시정에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키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2016년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주요 성과

연도	모니터링 사업수			주요 개선사항
	계	시	자치구	
계	70	70	70	
2013	21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콜센터 휴게공간 중 여성과 남성 공간 분리 •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 여성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코칭시스템 마련 • 부모 커뮤니티 컨설턴트 선정시 젠더관점을 가진 인적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
2014	22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성별참여율에 따라 성별 특성 파악 • 성인 남성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 여성활동가 육성을 전제로 지역일꾼 발굴
2015	15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실태조사시 성차별, 성희롱 피해 경험 조사 추가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시민생활안전 체험시 전업주부 대상 특화 교육
2016	12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별 특성 고려 •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활동 주제 다양화 • 젠더의 시각으로 건강도시 개념 재정의 필요

1)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함.



지역별 27개 젠더거버넌스 구성, 108개 사업 모니터링

젠더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서울 각 지역에서 보다 성평등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시와 자치구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5개 자치구, 서울 YWCA·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등 약 30여 개의 풀뿌리 여성모임(단체)과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총 27개의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워크숍, 선행 사례 분석 등을 활용하여 성별 분리, 성별 특성 고려 등 성인지적 관점 검토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단 자격 요건, 모니터링 사업 선정 기준, 모니터링 방법(정성/정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 모니터링 활동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5개구 27개 젠더거버넌스 구성

연번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운영 주체	연번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운영 주체
1	종로구	종로구청정책평가단	14	마포구	버들바람
2	중 구	초록맘리더봉사단	15	양천구	남서여성민우회 / 강서양천여성의 전화
3	용산구	용산구 여성모임 미르	16	강서구	강서여성모임
4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17	구로구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5	광진구	동서울여성회	18	금천구	건강한 농부 사회적협동조합
6	동대문	동대문마을모임	19	영등포	영등포여성회
7	중랑구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20	동작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8	성북구	성북 바람마당	21	관악구	관악여성회
9	강북구	강북여성모임	22	서초구	서초나비코치단/ 가든밸류
10	도봉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강모임	23	강남구	인투인연구소
11	노원구	노원여성회	24	송파구	동서울여성회
12	은평구	봉산생활권건강생태계조성사업단	25	강동구	함께크는우리도서관 벼와보리
13	서대문	하늬바람, 너머서			

이렇게 개발된 매뉴얼 및 지표를 바탕으로 27개의 젠더거버넌스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역별·분야별 주요 사업 108개를 선정하여 성인지성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범죄예방디자인사업,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등 5개 사업이며, 자치구의 경우 종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03개 사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젠더거버넌스가 활동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사례집에는 108개 사업의 개요와 모니터링 개선안 및 반영 의견 등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활동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 젠더 활동가 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18회에 걸쳐 시행된 시민력 강화 교육에서는 성인지 및 성주류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기초 교육, 젠더거버넌스의 이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일자리·복지 사업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활동가의 경험과 역량에 따른 보다 심화된 맞춤형 워크숍도 10회 진행됐습니다.



그간 성과 활용, 2018년 사업 확대 운영

서울시는 성평등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서별 젠더담당자 지정, 성인지 예산 목표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실시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7년부터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젠더거버넌스'를 확대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기존 10

개 자치구 안팎으로 운영되던 풀뿌리여성조직 기반 젠더거버넌스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했고, 또한 25개 자치구에서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안 제안의 주체가 될 200여 명의 여성 시민 활동가를 발굴·양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 108개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2018년 역시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사업에 따라 서울 각 지역에서 보다 성평등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꼼꼼한 모니터링을 추진해 갈 것이며, 그간 실시했던 젠더거버넌스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2017년 성인지성 모니터링 과제 현황

지자체	대상 사업 수	모니터링 과제		
		일자리	안전	복지
계	108			
서울시	5	• 시민안전 파수꾼 사업 • 여성의 눈으로 본 서울시 일자리 사업	•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마을분야)
종로구	4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 시민안전의식제고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주민행복드림프로젝트추진
중구	3		• 광희동신당동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 우리동네U건강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용산구	4	• 마을기업육성사업	• 자율방범대 지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 노인복지시책사업
성동구	4	•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만들기(셉테드)	• 구청사 유지관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공동체 조성
광진구	4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 생명탄생의 신비~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건강한 성교육 •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동대문구	3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안전마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중랑구	6	• 공공일자리사업	• 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 • 공중 화장실 관리	• 정신건강증진사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성북구	4		• 샅터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 아동놀이환경 조성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강북구	4		• 안전문화운동	• 정노인돌봄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드림스타트
도봉구	4		• 재난복구지원체계구축	• 복지체육 활성화 • 구정홍보활동 지원 • 이동지원
노원구	4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일반주택자 범죄 제로화 사업 • 혁신교육지구사업

은평구	4	• 청년창업, 취업지원	• 걷고 싶은 은평길 조성 •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만들기	• 원스톱 은평건강관리센터 운영
서대문구	4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인복지센터운영 •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서울시혁신교육지구사업 (진로직업체험 확대)
마포구	4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생활안전교육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양천구	4			• 목공체험장운영 • 어르신상담센터운영 •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강서구	4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 봉제산 근린공원 편익시설 정비사업
구로구	4	• 자활지원사업	• 공중 화장실 관리	• 치매지원사업 • 가족행복드림
금천구	4		• 마을버스사업	• 자살예방사업 •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영등포구	4	•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사업
동작구	4		• 범죄예방디자인사업 • 공중화장실 개선	•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 • 동네체육시설정비
관악구	4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안전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 금연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초구	6		• 『여성안심 도시』 조성 추진계획	• 17년도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운영 •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 치매예방관리사업 (2016년 과제) • 2016년 사업_맘스든 (2016년 과제) • 반딧불 센터 사업 (2016년 과제)
강남구	4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방범용CCTV 설치사업	• 평생학습체제 구축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송파구	4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만성질환교실 운영
강동구	5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 공중화장실 관리	• 보행자우선도로
총계	211	19개	28개	61개

다양한 청년활동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홈페이지 : <https://youthhub.kr> (서울시 청년허브)
<https://seoulyg.net>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문의(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6579

가능성, 키웁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준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청년허브는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다양한 청년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2012년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센터 1동에 자리를 잡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년허브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본적으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뜻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허브에서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보 수집 및 공유,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강화, 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발적 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청년주간', '서울청년의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서울 시정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스스로 정책 만들어 문제해결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정책 제안, 캠페인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미조직된 당사자인 청년들을 권리의 주체인 시민으로 모이게 하고, 지역과 세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참여, 서울청년의회와 서울청년주간 공동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기를 구성한 이후, 2018년 5기가 구성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연평균 200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하고, 서울시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2014), 희망두배청년통장(2015), 청년수당(2016), 청년공간 무중력시대 조성(2015) 등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3~4월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지며, 4~6월경에는 전체 참여자를 초대하는 멤버십 캠프가 진행되고, 매년 참여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정책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8년의 경우 청년자립과 청년공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었는데, 청년자립은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설자리, 참여확대 분과로 구성하였고 청년공존은 성평등, 장애인권, 다양성, 건강, 생태분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주요한 연중 일정으로는 8월 중 청년의회, 10~11월 중 청년주간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회는 상반기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행사입니다. 서울시정에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의회'의 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청년의회'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청년주간의 경우 활동 기간에 이루어진 분과별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 일반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전국 각지의 청년활동가들을 초대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교류하는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참여 플랫폼



협치,
해냅니다

2017 청년의회 통해 10대 정책 의제 제안

2017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를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여 그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서울청년의회에서는 분과별 모임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들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서울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년의회에서는 총 10개의 정책 의제(청년수당, 니트, 교통, 장애인, 마음건강, 일자리 뉴딜, 부채, 주거, 시민교육, 갭이어)에 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정 기간 새로운 환경에서 진로를 모색할 때 지원해주는 '서울형 청년 갭이어 지원사업'과 심리상담을 받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이 주목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 미취업자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시간 확대 등 청년들이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제안된 10대 정책은 청년의회에서 일차로 논의한 후 각 실·국·본부에서 간담회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29일 진행된 서울청년주간에는 54개 부스 운영을 포함하여 130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국제컨퍼런스, 청년활동박람회, 전국청년활동가 교류회, 무중력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청년활동박람회는 청년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들과 청년단체들의 활동 박람회, 일반 시민들에게 청년정책의 혁신성을 알리고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청년활동 전시존,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꾀하는 버스킹 토크존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학생 기지단을 구성·운영하여 청년 이슈 및 서울시 청년정책과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경기·부산·대구·대전·전주 등 타지역 청년들과 청년교류회를 가져 서울시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발전된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여 시민과 함께 실행하는 시정 민주주의 서울



- 홈페이지 : <http://democracy.seoul.go.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emocracyseoul/>
- 문의(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02-2133-6323

가능성, 키웁니다

서울시 정책 서울시민이 세운다

나날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성숙됨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 청년 실업률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해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 seoul)'을 구축하여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의 수혜자 혹은 피해자일 수 있는 시민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민이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서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결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I · SEŌUL · U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더 나은 일상을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듭니다.**

2017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이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서울 둘러보기 >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해서

서울시가
함께 실행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고, 제안하고, 삶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더 가까이 만나보세요.

새길, 만듭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플랫폼

IT산업의 발달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알 권리'를 찾고, 자신의 의견을 쉽게 제안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기존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은 분절적 구조로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단체와 협업을 통해 플랫폼 개편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 민간 전문 단체인 '빠흐띠'와 민주주의 플랫폼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4차례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획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토론)→결정→실행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과 기능을 서울시 플랫폼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스페인 마드리드 정책 제안 웹사이트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를 통해 원스톱 체계를 모델링했고, 브리게이드(Brigade) 및 루미오(Loomio) 등의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수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해외 플랫폼 벤치마킹을 통해 투표에 의한 정책 결정, 원스톱 포털의 구현, 토론의 활성화, 정보 공개, 투명성 있는 통합적 구조, 유사 성향의 그룹핑, 찬성과 반대 의견 분리 게시, 원활한 의견 변경, 의견의 단순 시각화, 익명성 등 다양한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존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던 시민 제안 메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편리성이 증대되었고, 제안, 전문가 답변, 선호도, 부서답변 결과 등 흐름에 따라 도식화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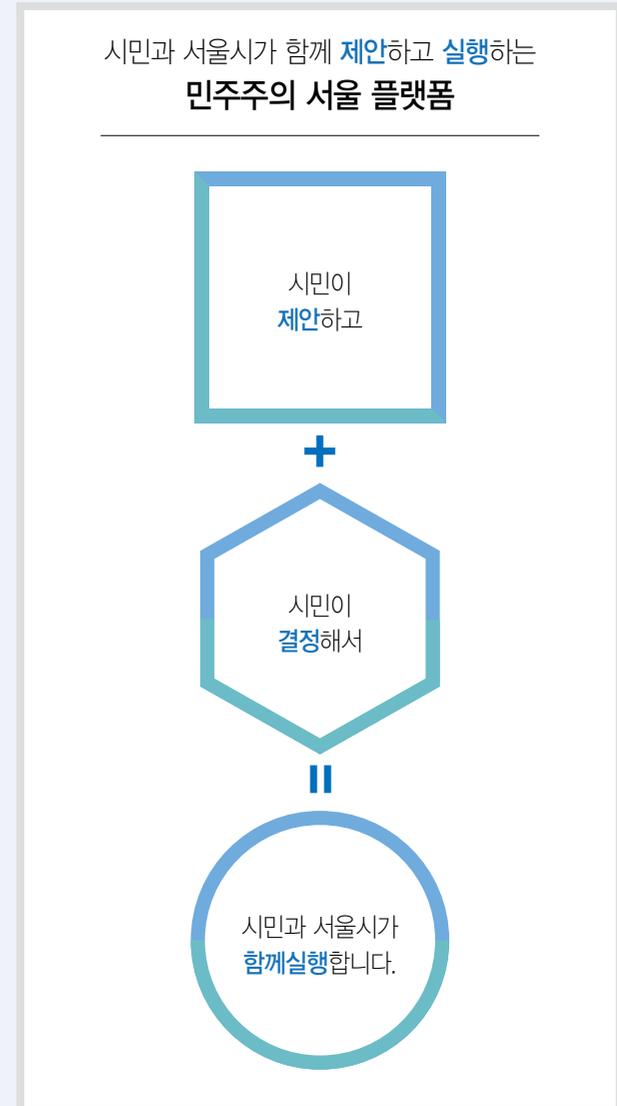
**협치,
해냅니다**

제안-결정-시행 한눈에 지켜보며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

2017년 10월 24일 오픈한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은 기존의 서울시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플랫폼으로 서울시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안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안을 하고 정책이 채택된 후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또한 정책 실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등의 한계를 보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책제안-결정-실행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크게 ▲시민제안 ▲결정 ▲실행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이후에는 20일간의 숙의 과정이 뒤따르며, 숙의 기간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서울시 담당 부서로 이관됩니다. 담당 부서에선 10일간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실현 가능성도 따져봅니다.

서울시가 채택하거나 부분 채택한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시민들이 투표로 정책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 제안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중인지도 '민주주의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 광장에서조차 불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100% '시민학교' 모두의학교 개관

- 홈페이지 : <http://smile.seoul.kr/moduschool>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oduSchoolSeoul>
- 문의(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02-2133-3964
(평생교육진흥원) : 02-852-7296



가능성, 키웁니다

세대·성별·지역을 넘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

1971년부터 2016년 초까지 45년간 중학교로 사용되던 공간을 새롭게 꾸며 세대와 성별,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가 배움을 나누는 '진짜 학교', '모두의학교'로 탄생했습니다. '모두의학교'에는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으며, 동갑내기여야 같은 반이 되는 법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배움이 필요한 사람, 각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유휴 시설이 늘어나자 이를 활용할 방안으로 전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28.4%)이 전국 평균(36.8%)에 미달되고(2009년 기준), 학력·소득과 같은 계층 및 지역에 따른 격차가 심각한 데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된 반면, 지나치게 직업능력 프로그램에 치우쳐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평생학습시설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기인합니다.



새길, 만듭니다

9차례 시민참여워크숍으로 설계도면 및 공간구성 변경

'모두의학교'는 2013년 금천구 독산동에 있던 한울중학교가 시흥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남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등 여러 안이 있었지만 혁신적인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하는 공공의 평생학습센터인 '모두의학교'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설립·운영에 관한 방법이 모색되었고, 2015년 교육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분석 용역을 한 이후, 같은 해 8월 '모두의학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리모델링 설계가 시행되고, 2016년 3월~12월에 운영자문단과 서울평생학습혁신기획단 내 '모두의학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모두의학교'를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9회에 걸쳐 시민 참여 워크숍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공간 배치나 각 공간의 기능을 정하는 데 시민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7년 10월 마침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지상 5층(옥상 포함), 연면적 2,462㎡ 규모의 '모두의학교'는 일반적인 강의실이나 강당 외에도 다채로운 공간들이 들어섰습니다. 각종 모임과 학습을 위한 가변 공간 '모두스통광장'부터, 마치 글램핑장을 옮겨놓은 듯 한 휴식처 '도란마당', 최신 주방시설과 조리도구를 갖춘 '동네부엌',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스튜디오' 등이 그 예입니다.

함께, 세웁니다

개방적인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장

'모두의학교'는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민관 협치 모델을 구현한 사례로 꼽힙니다. 시민참여워크숍 결과에 따라 '모두의학교'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변화형 공간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을 넘어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이 되도록 혁신적인 시민학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진행까지 시민자원활동가 58명이 주도하는 개관식을 2017년 10월 28일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누구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배움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법론 혁신' 프로그램 프로세스 및 툴킷 1단계를 개발 완료하여 시범 운영했습니다. 또한 각종 배움에 관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기획, 제공하기 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2017년 첫 공모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주제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시민학교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한 것으로, 40여 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그 중 '모두의흙학교', '아하학교', '업사이클학교' 등 8개 팀이 최종 선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 '모두의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8개의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 사업

학교명	프로그램 개발 내용
모두의흙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여러 세대 내용 : 인터리어를 통해 가족 간의 단절된 소통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거주 공간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마을지도로 고령노인 지키기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청소년 내용 : 독거 어르신들의 상태를 마을 지도 작성하여 고령화가 품고 있는 문제를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세대성장 학교
1924 금청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후기 청소년(19~24세) 내용 : 후기청소년(비진학청소년)들의 자아재정립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학교
아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우울증 위험 노출 여성 내용 : 폐가구 등의 리폼을 통해 자신의 삶도 리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는 학교
업사이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시민 누구나(옷이 작아서, 유행이 지나서 의류를 버리는 사람) 내용 : 버리는 옷을 새롭게 바라보고 버리는 것보다는 다시 쓰기 운동을 통해 자원에 대해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학교
은빛까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시민 누구나 내용 : 어르신의 시선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른 세대들에게 인생경험을 나누는 학교
FUNFUN 상호문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비 다문화가정 아동 내용 :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간에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 및 문화 평등성을 인식하게 하는 문화활동학교
마을목공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중장년 시민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꾸밀 수 있도록 하여 세대 간의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협치, 해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고민하고 나누는 배움터

앞으로 '모두의학교'는 시민참여형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 운영체계를 만들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시민대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및 실행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고민하고 나누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움의 주제와 형태를 다각화하는 '모두의 상상블 프로젝트'를 연중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축, 미디어,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 간 융합을 기반으로 주제 중심(theme base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공공성 있는 주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민학교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시민이 평생학습의 수혜자에서 프로그램 개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회연계형 시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학습을 통한 시민의 성장이 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 누구나 책과 함께 쉴 수 있는 '모두의책방'을 조성·운영하여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이자 공유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치로, 연결되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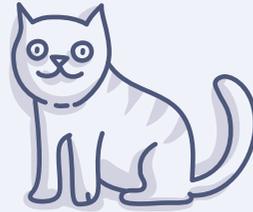


2017 서울협치백서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협치로, 연결되는 서울

- 7-1.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 7-2. 금천구 청춘벨딩
- 7-3.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 7-4. 서대문구 보육포럼
- 7-5. 성북구 동행계약서
- 7-6. 양천구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 7-7. 영등포구 '천·취·창·조'
- 7-8.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마을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 문의(강동구 일자리경제과) : 02-3425-6013

가능성, 키웁니다

지자체 최초로 길고양이 쉼터, 급식소 마련해

어두운 밤 아이 울음소리 같아 약간은 섬뜩하기도 한 울음소리의 주인공, 바로 길고양이 들입니다. 서울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수는 무려 25만 마리. 도시의 길고양이들은 로드킬과 전염병에 취약하며, 늘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는 처지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찢어 음식물을 파헤치기도 하여 주민들의 단골 민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5년 벽돌을 맞고 사망한 '용인 캣맘' 사건 이후 길고양이 관리와 보호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학대도 잇따르자 강동구가 먼저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3년 지자체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 강동구는 동물과 공생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길고양이는 남남남, 주민들은 하하하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시작한 이래 4년차가 된 2017년 강동구는 총 61개소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는 공원과 도로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설치되어 기물 파손이나 먹이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급식소의 운영과 관리는 지역 캣맘들이 맡았습니다. 미우캣보호협회 회원 중 추천을 받아 동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급식소를 드나드는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개체 수를 조절하는 중성화 수술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 받아들이니 공감 UP, 참여 UP

길고양이 급식소의 아이디어는 웹툰 작가 강풀 씨의 아이디어와 기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동구민이기도 한 강풀 씨는 직접 고양이를 기르면서 '미우캣보호협회'를 알게 되었고, 회원들과 의기투합하여 구청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강동구는 강풀 씨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급식소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고, 강풀 씨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년 간 급식소에 비치할 사료그릇 제작비용과 사료 6톤을 기부하였습니다. 강풀 씨는 1년 후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그 후 1년'이라는 글을 통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 그리고 사업 시행 후 달라진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강동구는 건국대학교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좀 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한 이 조사를 통해 강동구는 2017년 2월까지 길고양이 급식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습니다. 실태 조사에는 건국대학교 부설 동물복지연구소 내 수의학 교수 및 수의사 등 5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급식소 운영에 따른 길고양이 개체 수 변화,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61개소의 효용성 및 지속 여부 등이었습니다. 해외 사례연구도 병행하여 급식소 관리 방법 및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협치, 해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 만들어

이 작은 급식소들은 길고양이와 주민들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급식을 하면서 길고양이들의 기본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해소됨은 물론, 먹이 찾는 행동으로 인한 민원도 급감했습니다. 길고양이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면서 각종 전염병 위험도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또 급식소 주변에 있는 많은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기 쉬워졌고, 포획된 아이들을 중성화 수술하여 다시 방사하기 역시 편해졌습니다. 강동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960마리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출산이 많은 어미 고양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한편, 주민 민원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료그릇 설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포획을 실시해갈 방침입니다. 또한 강동구 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동물보호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과 행정 동행의 첫 시작! 금천구 청춘벨딩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blg>
○ 문의(금천구 지역혁신과) : 02-2627-2583

가능성,
키웁니다

청년문제 함께 풀어갈 청년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 외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복지관 혹은 경로당 등이 있지만 청년을 위한 공간은 그동안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천구는 청년들로 이뤄진 비영리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청춘벨딩'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 속에 청년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 후배들과 긍정적인 만남을 지속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선순환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꿈지락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공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금천구청 역시 청년이 실행하고 행정 이 지원하는 민관협치를 시작하면서 '청춘벨딩'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개방형 청년활동 공간

2016년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가 청년공간 조성에 관한 행정 지원을 구청에 요청하면서 청춘벨딩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청년실업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청년정책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이에 면대면 모임을 통해서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청년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5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년공간 조성의 첫발을 쉽게 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들이 스스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제안하여 유휴공간 리모델링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후 관내에 있는 유휴시설을 조사하여 활용이 저조한 구립독서실 건물의 리모델링을 제안하였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청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립독서실을 청년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고 '꿈지락네트워크'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민관 협치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7차례의 민관 회의를 거쳐 공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3층을 리모델링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청년들이 직접 3층을 리모델링하기로 하면서 그야말로 청년의 피땀 어린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됩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청년공간 '청춘벨딩'은 2016년 11월 7일 정식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개방형 청년활동 공간 '청춘벨딩'은 연면적 354㎡ 규모로 1층에는 청년 입주 공간이 마련돼 있고, 2층에는 독서나 휴식, 회의를 할 수 있는 모임 공간, 3층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유 주방 공간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운영예산을 아끼기 위하여 직접 홍보물을 디자인하여, 공간과 프로



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관계망 형성을 돕는 청년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교류회, 청년들의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인 'Camp-Next in 금천', 청년이 디렉터가 되어 영화를 선정하고 함께 관람하는 청춘씨네마, 지역 청년들이 저녁식사 시간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해먹으며 끈끈한 관계망을 만들고 관심 있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 나누는 소셜다이닝 사업인 '대대식당', '사연 있는 식당', '식사를 부탁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주제에 맞춰 집단지성을 이끌어 내는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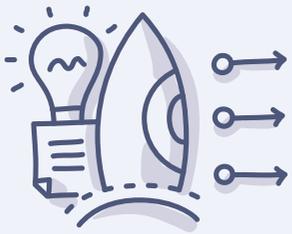
2017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사회혁신 부문 대상 수상

청춘벨딩을 운영하는 꿈지락네트워크의 노력으로 정식으로 개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고정 회원수 860여 명, 누적 이용자 6,470여 명을 이끌어 냈고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99%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7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 부문 대상을 차지하였고, 20여개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청춘벨딩을 방문하였습니다.

금천구 역시 청춘벨딩 등 청년활동을 곁에서 돕기 위해 2017년 1월 청년동행팀을 조직하여,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목표를 두고 청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청년문제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2017.11.16.)하기도 했습니다.



유해음식점 거리, 문화와 예술이 있는 명소로 거듭나다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문의(도봉구 지속가능발전과) : 02-2091-4804

가능성, 키웁니다

환경 해치는 유해업소 퇴치 프로젝트 가동

도봉구 방학천을 따라 오래도록 카페형 유해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하여 민원이 많았습니다. 2016년 5월 유해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한 이후, 일부 유해업소가 자진 폐업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역부족이라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해음식점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동의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업소마다 임대기간이 다른 데다, 건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인적이 드물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라 폐업 이후에 마땅히 들어설 업종이 없으며, 향후 같은 업종이 다시 들어올 여지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는 지속적인 건물주와의 면담과 함께, 민·관·학·경 합동 야간 단속을 하는 동시에 민관협의체인 '협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실로 2018년 4월 13일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4단계에 걸쳐 여러 이해 관계망 속에 거듭난 새길!

도봉구는 도봉로143길 18~50 일대 11개 건물 31개 유해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민관협치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우선 유해음식점의 근절을 위하여 건물주 및 영업주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설득하고, 민·관·학·경 합동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2016년 10월에는 폐업한 일부 업소의 공실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로 꾸며 지역문제 해결의 거점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및 창업인 지원을 위하여 SH공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원룸형) 건립을 추진하고, 거리조성 전 과정을 주민 및 지역활동가와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협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포럼'을 2017년 4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밖에도 유해음식점 공실 임차, 입주자가 모집 및 선정, 임차료 지급, 리모델링, 물품 지원 등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따른 여러 조치들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 휴식 장소로 데크와 수변공간을 설치하는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 9월 트리아트와 벽화 등으로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추진단계





**협치,
해냅니다**

민관협치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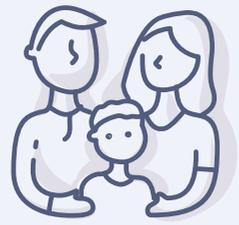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기존에 운영되던 유해업소를 폐업 및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예술·문화 관련 창업을 통해 거리를 조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주 및 건물주들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직업훈련 등 각종 혜택을 연계하여 긴급지원금 2개소,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 1개소,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지 선정 1개소, 기초수급자 신청 4개소, 구직등록 2개소 등 현실성 있는 접근을 통해 유해업소의 근본적 근절이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삭막했던 유흥거리에 사람 향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팅 공간이자 인근업소 업종 변화 유도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방학생'을 오픈하기 전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해 논의하였고, 활성화 워크숍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 속에 운영됐습니다. 또한 민관협치의체로 '협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 협의하며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봉구, 건물주, 입주자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모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누리는 세상 만든다! 서대문구 보육포럼



문의(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 02-330-1294

**가능성,
키웁니다**

보육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

보육은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 영역에 속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누리고 아동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일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역의 구성원들 모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보육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치를 통해 보육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대문구는 매년 2회의 보육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보육내용과 보육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매년 2회 정기적인 보육포럼 개최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의 보육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회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대문 보육포럼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포럼 관련 의제 발굴 및 논의 주제 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보육포럼은 '아이들 곁에 있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등 매회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초빙된 전문가의 강연과 함께 모듬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의 토론 결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최된 제5차 포럼은 '아이들은 왜 숲에서 놀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신지연 한국숲교육연구소 소장의 기조 강연과 함께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육시설의 사례 발표가 이뤄졌으며, 제6차 포럼은 '마을놀이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편해문 강사의 '기적의 놀이터'에 관한 강연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 추진 관련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보육포럼 개최 상황

회차	일시 및 주제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5.8.26, 16:00~19:00 서대문구청 대강당 • 참여인원 :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 명 • 주제 : 아이들 곁에 있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5.12.12, 10:30~13:30 서대문구 원천교회 • 참여인원 :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120여 명 • 주제 :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6.4.29, 14:00~17:00 서대문구청 대강당 • 참여인원 :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130여 명 • 주제 : 미디어가 미취학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6.11.4, 15:00~18:00 서대문구청 대강당 • 참여인원 :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130여 명 • 주제 : 안전한 먹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7.5.24, 14:00~17:00 서대문구청 대강당 • 참여인원 :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130여 명 • 주제 : 아이들은 왜 숲에서 놀아야 하는가!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7.11.17, 10:00~13:00 서대문구청 대강당 • 참여인원 :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130여 명 • 주제 : 마을놀이터 이대로 좋은가?

**협치,
해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위한 자발적·수평적 참여

대문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공동체 의식 아래,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역의 구성원들이 모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보육포럼을 매년 2회 개최함으로써 서대문구 보육환경의 질적·양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원장, 담당 공무원들이 민관 협치를 통해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듬토의를 통해 포럼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여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갑을이 아닌 아름다운 동행으로 일군 상생! 성북구 동행계약서



문의(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05

가능성,
키웁니다

불합리한 갑을관계 타파하는 '동행 프로젝트'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대량 해고 위험에 노출된 경비원들에게 성북구 아파트 주민들과 성북구는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안정은 물론 갑을관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여 대표적인 민관협치의 공동체 상생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서에 갑과 을이 아닌 성북형 상생아파트 브랜드 명칭이기도 한 동(同)과 행(幸)을 사용함으로써 상생하는 계약관계를 상징하였으며,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 등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어 지나친 이기주의로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문화를 상생과 호혜의 근거지로 탈바꿈시킨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대량 해고 위기 경비원, 시민의 지혜로 구하다

최저임금 적용이 유예되었던 경비원들에게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2014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됐을 때 경비원들 중 10~20% 해고된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을 해고하기는커녕 성북구 주민들은 '성북절전소 사업'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의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전기요금을 4억 원 절약하거나(석관두산아파트), 용역업체를 배제하고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여(동일하이빌 뉴시티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지급함으로써 집단 해고를 막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성북구청도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공동주택 상생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경비원 고용안정 재원확충을 위한 관리비 절감사업인 LED 교체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0억 원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성북구에서 이와 같이 상생의 분위기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그간의 노력 덕분입니다. 2010년부터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공동주택 리더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721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 아카데미를 개설한 것은 물론, 2016년 9월 마을시민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시민교육을 체계화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은 모두 30여 명으로 입주자대표 2명, 부녀회장 2명, 경비원 2명, 관리소장 2명, 경비용역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등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때 아파트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행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입주자대표회-용역업체-관리소장-경비-구청까지 아우르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확약식'을 통해 각 주체별로 실천내용을 약속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집니다.

또 이를 계기로 계약서에 갑을이 아닌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행복하자는 동(同)과 행(幸)으로 표기하여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년 11월부터 성북구도 모든 행정계약에 동행 계약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성북구 아파트 대표 윤리강령(2016년 1월) 및 「성북구 동행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6년 10월)됩니다.



**협치,
해냅니다**

상생하는 공동체문화 확산, 사회적 자본으로 돌아오다

2017년 10월 26일에 성북구는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으며, 동행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경비원 근무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지수화한 동행지수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 31일에는 입주자-경비원 간 상생 비결을 담은 '동행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홍보관에는 첫 동행 계약서부터 동행 관련 활동과 기록물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경비원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모의시민의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공무원 및 관계자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권고문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성북구가 시행한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 프로젝트'는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경비실에 에어컨 5대를 기증한 주민 소식에 또 다른 주민들이 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례,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를 충당한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선순환을 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성북구 동행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는 동행의 의미가 널리 퍼져 타 시도의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져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조례」(2017.11),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2017.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2017.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2017.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2017.1),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2017.1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2017.11)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북구 동행 프로젝트는 아파트 공동체사업에 머물지 않고 '함께 하면(同行) 함께 행복(同幸)하다'라는 성북구정의 운영원리로 확장되어,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꽃이 되다! 양천구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문의(양천구 청소행정과) : 02-2620-3439

가능성, 키웁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지에서 원천 감량하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넘쳐나는 쓰레기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자원 낭비로 경제적 손실도 큼니다. 쓰레기를 분류하여 재활용하고 있지만 그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양도 많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양천구는 가정에서 조리 전 발생하는 음식물 생쓰레기와 공원에서 수거한 낙엽을 퇴비장에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퇴비를 다시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또는 농장 등에서 유기농 거름으로 활용하는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의 57%가 유통-조리 과정에서 나와 이와 같이 조리 전 처리함으로써 배출지에서 원천 감량할 수 있고, 생산된 퇴비는 재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은 물론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쓰레기와 공원에서 수거한 낙엽을 혼합한 후 발효시켜 유기농 거름을 만듭니다. 양천구 관계자는 9일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이 많이 생겨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길, 만듭니다

2013년 시범 운영 후, 2014년부터 본격 시작

양천구에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으로 서울남서여성민우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천구청,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신정 주말농장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양천구청은 퇴비장에 생쓰레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신정 주말농장은 퇴비장에서 생쓰레기와 낙엽을 혼합·발효하여 퇴비화하는 역할을, 서울남서여성민우회는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아파트를 섭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파트 3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28톤을 수거하여 퇴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어 본격적으로 2014년에는 5개 단지(2,863세대)로 확대하여 144톤을 수거하였고, 2015년에는 9개 단지(9,962세대)에서 3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생쓰레기 퇴비장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퇴비 발효용 비닐하우스 설치와 발효제 살포기 및 물탱크 등을 구매하고, 한신청구 외 11개 단지(11,102세대)에서 3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17년 역시 한신청구 외 11개 단지에서 362톤을 수거하여 원활하게 퇴비화하여, 이를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및 신정주말농장에서 사용하는 물론이고 퇴비장을 견학 및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지 수	3	5	9	11	11
이용 세대수		2,863	9,962	11,102	11,102
수거실적(톤)	28	144	300	315	362

협치, 해냅니다

퇴비 생산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감

양천구는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통해 매년 300톤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였으며, 주말농장에서의 퇴비 활용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비와 낙엽 처리비,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적공동체로 일구는 아름다운 청년자립프로젝트 영등포구 청년활력일자리 만들기 '천·취·창·조'



문의(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 02-2670-1664

가능성, 키웁니다

청년의 직업적·사회적 자립 '천·취·창·조'

영등포구는 장기적인 취업난으로 침체된 청년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 스스로 직업적·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천·취·창·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네트워크'와 '청년드림팀', '청년활력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서 '천·취·창·조'의 뜻은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목표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창조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평가하고 청년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취·창업 및 인생운영 프로그램 기획,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청년공동체입니다. 또 청년드림팀은 청년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문제에 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팀을 이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활력 프로젝트팀은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실태 욕구 조사 및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청년지원 정책에 있어 일자리와 청년을 일회적·단기적으로 연결하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 다수에 대한 지속적·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다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길, 만듭니다

절실함을 담은 민간협력 청년공동체

영등포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협력 파트너십으로 만든 청년공동체, 즉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직업적 성장 발전을 지원하고, 취·창업이 자유로운 청년 일자리 진입 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과 멘토링 및 기업탐방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청년 공유 주방 '남남잡잡(job)'을 열어, 청년네트워크 회원 12명이 모인 가운데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청년생활의 고민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9월부터 12개월까지 청년문제 및 지역사회문제의 진단·해결을 위한 자율 협업팀인 '청년드림팀'을 자율공모를 통해 8개 팀을 구성하여 청년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월에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민간협치기구인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고, 이 자리를 통해 영등포구 청년지원 사업 및 청년참여 프로그램, 취·창업교육을 소개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청년 취·창업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취업 실무교육과 블로그 교육이 각 4회씩 진행되어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실무, 창업에 필요한 블로그 운영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11월에 기업 현직자 10인과 직무 및 취업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청년 스탠딩 멘토링'이 열려, 45명의 취업준비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고, 현직에 활동 중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 발짝 선배특강'이 열려 청년들의 진로탐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콘서트 '잡(job)화(話)점'을 열어 성공한 현업 선배들의 취업을 위한 '즉문즉답 멘토링'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12월에는 구직자 청년 11명이 코스트코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연수를 통해 취업역량을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청년참여 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향후 청년정책 방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꿈땅 네트워크쇼'가 열렸으며, 고3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및 인생 전반에 대한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인 '열아홉 스프링캠프'가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 청년네트워크와 함께 3개의 '청년활력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실태 욕구 조사와 분석을 하여 영등포구 청년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치,
해냅니다**

청년의 꿈과 희망으로 만든 청년지원 프로세스

영등포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으로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개의 청년드림팀과 3개의 청년활력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년 및 유관기관, 행정부서를 아우르는 협치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공모를 거침으로써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업 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지역사회 문제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기업탐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청년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한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업 현직자 멘토와의 스탠딩멘토링, 현업 선배들과의 청년 취업콘서트를 통해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민의 삶을 감싸안은 책마을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 홈페이지 : <http://www.gsvlib.or.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svlib/>
- 문의(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 02-357-0100

가능성, 키웁니다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감으로 탄생한 도서관마을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모범'이라고 극찬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본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협치가 여우러진 대표 모델이며, 골목 마을을 살리고 마을 자원을 소중히 활용하는 도시 재생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감으로 탄생한 창의적인 도서관마을,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새길, 만듭니다

2008명 주민의 힘으로 도서관 건립해

공공도서관은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으며,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입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도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나 자료 열람, 학습 장소의 기능을 넘어 문화복지·교육·생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 건립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지역에 좋은 도서관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주민, 도서관 조성에 직접 관여하는 설계·시공자 모두가 '좋은 공공도서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예산 확보, 시설 조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및 시설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은평구의 공공도서관 수는 고작 세 곳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구산동은 초·중·고 11개 학교가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문화시설은 전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어른들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06년 5월, 11일 만에 2008명의 주민이 서명하여 도서관 건립에 동참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처음엔 새로 지을 예정이었으나 건축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것을 주민들이 제안했습니다. 최초 주민참여예산제로 19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구청장 면담을 통해 개별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만화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 시설을 통합·건립하여 관련 예산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후 국비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세웁니다

주민·지자체·정부 손잡으니 일사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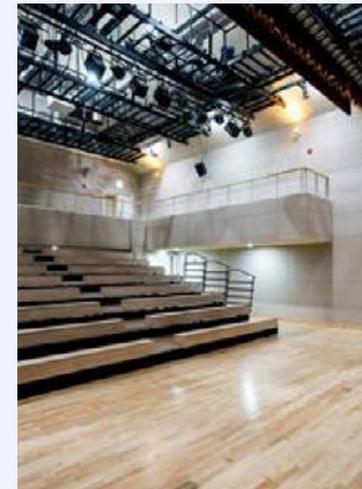
도서관 설계 기간 동안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은평구청 희망마을담당관의 총괄계획가(MP)와 설계자가 긴밀하게 협업하였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은 주요단계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설계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함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우수한 도서관 사례를 탐방·연구하여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마을의 도시구조와 기존 건물을 살린 리모델링 설계 과정은 많은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현장 실측과 안전 진단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설계 업무량은 예산을 초과하였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설계도 작성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예산부족으로 지하주차장이 지상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던 도서관 외부 광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특성 상 예상치 못한 일들로 설계 및 공사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현장에서 매주 1회 시공자 및 감리자, MP(희망마을담당관) 및 은평구 관계부서, 설계자가 참석한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는 준공 전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운영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의 기획 및 설계 과정을 함께 한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개관을 준비하며 은평구는 도서관 축제를 개최하고 도서관 중심의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서관을 매개로 한 마을 공동체 구축에 더욱 힘썼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한 은평구의 초기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협치,
해냅니다**

단순한 건물 아닌 골목 민주주의 공간으로 거듭나

주민과 은평구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청소년'과 '만화'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그에 맞는 장서와 프로그램을 갖추며 청소년들에게는 꼭 막힌 열람실이 아닌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주민에게는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영화를 보고 쾌적한 세미나실에서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하며, 별 좋은 날은 옥상 텃밭에서 작물을 가꾸며 이웃과 소통하게 하는 구산동 도서관은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종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17 서울협치백서 | 제2부

함께 걷는 협치서울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작	협치자문관 김병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협치지원팀장 구재성 협치지원관 김영남, 김호신, 유은옥 주무관 박정현
펴낸곳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8년 12월
출판일련번호	혁신 851-0030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915-01
ISBN	979-11-6161-434-2
디자인·편집	위브러컴 02.514.3194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